E 01-2016-04

2016 겨울

# 농업·농촌경제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특별주제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등 소비행태 변화 조사
-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우병준 bjwoo@krei.re.kr 김라이 kimlai@krei.re.kr, 윤선희 sunny@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056 팩스: 061-820-2409

# 목 차

## Ⅰ.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 1
2. 고용 ····· 4
3. 소비 ····· 5
4. 물가 ····· 8
5. 금융·환율 ····· 13


## Ⅱ. 농촌경제 동향


1. 농촌 물가 ····· 16
2. 농림어업 취업자 ····· 19
3. 농축산물 수출입 ····· 21


##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 26
2. 엽근채소 ····· 31
3. 양념채소 ····· 37
4. 과일 ····· 46
5. 과채 ····· 52
6. 축산 ····· 59

## 특별주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등 소비행태 변화 조사 ····· 69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 ····· 76

# 요 약

## Ⅰ. 일반경제 동향

- 2016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건설투자와 정부 및 민간 소비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함.
- 2016년 4/4분기 민간소비는 내구재 소비 증가로 전분기 대비 0.2% 증가하였으나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감소로 전분기 대비 1.7% 감소함.
- 2017년 경제성장률은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내수도 점차 둔화되어 전년 대비 2.4%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4/4분기 취업자수는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건설업은 증가세가 둔화됨. 고령층이 대부분인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함.
- 2016년 12월 소매판매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 휘발유·경유 판매량, 신용카드 승인액 등이 증가함. 소비심리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0%, 전월 대비 1.1% 감소함.
- 2016년 4/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하고 이 중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5% 상승함.
- 2016년 11월 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1.0%, 광의통화(M2)는 0.5% 증가함.
- 2016년 12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미국채 금리와 함께 하락함.
- 2016년 4/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원/엔 환율은 소폭 하락함.

# Ⅱ. 농촌경제 동향

- 2016년 4/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3.3%, 8.7% 상승함.
  - 곡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비중이 가장 큰 미곡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10.4%, 2.7% 하락함. 채소는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각각 15.8%, 18.1% 상승함. 과실은 포도, 감귤, 감 등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각각 9.4%, 41.1% 상승함. 축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3.2% 하락함.
- 2016년 4/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0.3% 하락함.
  - 농업용품지수 중 농기구, 가축, 영농자재 등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비료, 영농광열비를 비롯한 대부분의 농업용품 가격이 하락하여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각각 2.3%, 1.8% 하락함. 농촌임료금지수는 농업노동임금과 농기계 임차료 상승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5.0%, 1.1% 상승함.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 하락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0.3% 상승함.
- 2016년 4/4분기 농업경영조건지수는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각각 6.0%, 8.3% 상승함.
  - 농업투입재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여 농업 경영조건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16년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고, 전분기 대비 9.7% 감소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나, 전분기 대비 2.0% 증가함.
- 2016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7%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5.4% 증가함.
  -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5%, 축산물은 0.4% 증가하였으나, 임산물은 81.8% 감소함. 수입액은 농산물은 전년 동기와 비슷하였으며, 축산물은 15.1% 증가한 반면, 임산물은 4.4% 감소함.
- 2016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농산물이 감소하였으나, 축산물과 임산물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함.

# Ⅲ. 특별주제

## 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등 소비행태 변화 조사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등 소비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기간은 2016년 10월 21~23일이며 온라인 웹기반에 의거하여 조사를 실시함.
- 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73.6%는 식사 접대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접대 횟수가 5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전체의 48.6%를 차지함. 식사 접대 횟수가 40~50% 감소했다는 응답 비중이 13.2%로 나타나 40% 이상 접대 감소 응답 비중은 총 61.8%를 차지함.
- 직장인 1인당 1회 식사 접대 비용이 3만원 이상인 비율은 70.6%에서 24.9%로 낮아짐. 식사 접대 비용이 3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전체의 29.4%에서 64.5%로 증가하고 식사 접대가 전혀 없다는 직장인도 10.6%로 나타남.
- 접대 빈도가 감소함에 따라 가족과의 식사 기회는 증가하고 간편식품 소비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됨. 법 시행 후 접대 감소를 대신하여 가정 내 식사나 가족단위 외식 등 가족과의 식사를 택하는 직장인이 37.3%로 나타남. 접대가 감소함에 따라 지출이 늘어난 것은 간편대용식·즉석식품(19.3%), 빵·떡·과자(17.3%) 등 간편한 식품 종류임.
- 직장인 식사 접대 수요 위축은 일부 외식업종은 물론 농수축산업에 대한 위협 요인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지원 대책이 요구됨.

## 2.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

- 통계청은 최근 소비자의 기호, 구매패턴 등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여 조사대상 품목 및 가중치 등을 재조정함.
- 식생활의 서구화, 여가활동의 증가 등으로 축산물 가중치가 증가하고 있지만, 농산물과 농축산물 가중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농축산물 가격변화에 대한 소비자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 시 모든 부류에서 가계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외식비 및 통신요금에 비해 농산물의 가계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었음.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비농축산물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할 때, 실제 지출액은 가격 상승 이전과 비슷하게 하되 구매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지출하는 품목은 휴대전화료이며, 가격 상승 시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일 품목은 커피(외식)로 조사되었음.
- 농축산물 가격변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여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배추 가격이 50% 상승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0.06%p로 크지 않음.
  - 이는 커피(외식)의 기여도인 0.24%p의 1/4 수준임.
- 2016년 3/4분기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인 275만 원을 기준으로 품목 가중치를 활용하여 소비 지출액을 추정하면, 배추의 월 지출액은 3,300원, 달걀 월 지출액은 6,600원 수준임. 이는 커피(외식)의 월 지출액인 13,200원과 휴대전화료의 월 지출액인 10만 5,325원보다 낮은 수준임.
  -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낮은 배추, 달걀 가격이 50% 상승하고 소비량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각 품목의 월 소비 지출액 증가분(배추 1,650원, 달걀 3,300원)은 월 소비 지출액은 휴대전화료 가격의 10% 상승에 의한 추가 가계 부담분(10,533원)보다도 낮음.
-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물가는 소비자의 특성 및 구입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농축산물 가격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 가구원수 등 소비자의 특성 및 구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Ⅰ. 일반경제 동향[1)]



## 1. 경제성장[2)]

- 2016년 경제성장률은 건설투자가 크게 늘고 정부 및 민간의 소비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전년 대비 2.7% 성장함.
  - 2016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 증가로 전분기 대비 0.4% 증가하였으나 최근 5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함.
- 부문별 경제성장률은 건설투자와 수출은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설비투자는 크게 증가함.
  - 민간소비는 내구재 소비 증가로 전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함.
  -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의 감소로 전분기 대비 1.7%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함.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가 모두 늘어 전분기 대비 6.3%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함.
  - 수출은 자동차가 늘었으나 운수서비스 등이 줄어 전분기 대비 0.1% 감소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함.
  - 수입은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함.

---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윤선희 연구원(sunny@krei.re.kr), 우병준 연구위원(bjwoo@krei.re.kr)이 작성함.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6년 4/4분기 연간 국내총생산(2017.1.25)」,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2017.1)」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 | 2015p | | | | | 2016p | |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 G D P 성장률 | 0.8 | 0.8 | 0.4 | 1.2 | 0.7 | 0.6 | 0.5 | 0.8 | 0.6 | 0.4(2.7) |
| 민간소비 | 0.8 | 0.8 | −0.1 | 1.1 | 1.4 | 0.4 | −0.2 | 1.0 | 0.5 | 0.2(2.3) |
| 정부소비 | 0.9 | 0.5 | 0.9 | 1.3 | 1.0 | 0.8 | 1.3 | 0.1 | 1.4 | 0.5(3.9) |
| 건설투자 | 2.1 | 5.5 | 1.8 | 3.3 | −2.4 | 2.9 | 6.8 | 3.1 | 3.5 | −1.7(11.0) |
| 설비투자 | 0.9 | 0.5 | 0.8 | 1.8 | 0.5 | 0.5 | −7.4 | 2.8 | 0.2 | 6.3(−2.4) |
| 총 수 출 | 0.6 | 0.6 | −0.1 | −0.3 | 2.1 | 0.1 | −1.1 | 1.1 | 0.6 | −0.1(1.4) |
| 총 수 입 | 1.5 | 0.9 | 0.4 | 1.4 | 3.2 | 0.5 | −3.1 | 2.1 | 2.8 | 0.2(3.0) |

주 1. 2015p, 2016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경제활동별로 전분기 대비 제조업 경제성장률은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감소함.
  - 제조업은 기계, 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1.8% 증가하나,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함.
  - 서비스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늘었으나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이 줄면서 전분기 수준 유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함.

##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 | 2015p | | | | | 2016p | |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 농림어업 | −1.5 | 3.7 | −11.0 | 4.7 | −2.6 | −2.8 | 6.5 | −6.6 | −1.6 | −2.8(−4.8) |
| 제조업 | 1.3 | 0.4 | 0.9 | 0.4 | 0.7 | 1.7 | −0.2 | 1.2 | −0.9 | 1.8(−1.9) |
| 서비스업 | 2.8 | 0.7 | 0.2 | 1.1 | 0.7 | 2.5 | 0.5 | 0.6 | 0.9 | 0.0(−2.0) |
| (도소매 및 음식숙박) | 2.1 | 0.7 | −0.4 | 0.9 | 1.7 | 2.8 | 0.2 | 0.9 | 0.1 | 0.6(−1.8) |
| (금융 및 보험업) | 6.3 | 1.4 | 2.3 | 2.1 | −1.1 | 3.6 | 1.3 | 0.9 | 1.2 | 0.7(−4.1) |
| (부동산 및 임대) | 1.9 | 0.7 | 0.3 | 0.5 | 0.3 | 1.0 | 0.3 | −0.2 | 1.1 | −1.2(−0.1) |
| (보건 및 사회복지) | 5.6 | 1.5 | −1.0 | 2.2 | 3.2 | 8.4 | 2.3 | 0.2 | 4.4 | 1.1(−8.2) |

주 1. 2015p, 2016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017년 경제성장률(GDP)은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내수도 점차 둔화되면서 전년 대비 2.4%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가 둔화되나,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의 개선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개선의 미흡,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 및 물가 오름세 확대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소비심리 개선을 지연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인구고령화에 따른 예비적 저축 증가 등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도 상존하고 있음.
  - 한편, 아파트 입주물량 확대,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 등은 소비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제여건의 개선, IT업종 투자수요 증대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임.
  - 정부도 공공투자 자금지원 확대 등의 투자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IT부문은 글로벌 업황개선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보호무역주의 심화, 기업구조조정 추진, 국내 정치 불안 등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투자는 착공면적, 분양물량 등 선행지표의 둔화 움직임에 비추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주거용 건물은 주택수주, 착공면적 등 선행지표가 약화됨에 따라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비주거용 건물도 착공면적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토목은 중앙정부의 SOC예산 축소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상품수출은 세계수요의 점진적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일 전망임.

### 경제성장 전망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 2016 | | | 2017e) | | | 2018e) |
|---|---|---|---|---|---|---|---|
| | 상반기 | 하반기e) | 연간e)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GDP | 3.0 | 2.5 | 2.7 | 2.4 | 2.6 | 2.5 | 2.8 |
| 민간소비 | 2.7 | 2.1 | 2.4 | 1.9 | 1.9 | 1.9 | 2.3 |
| 설비투자 | −3.6 | −1.5 | −2.6 | 3.0 | 2.0 | 2.5 | 3.6 |
| 건설투자 | 10.3 | 11.5 | 10.9 | 5.9 | 3.0 | 4.3 | 0.1 |
| 상품수출 | 0.1 | 1.7 | 0.9 | 2.9 | 2.0 | 2.4 | 2.8 |
| 상품수입 | 0.7 | 2.5 | 1.6 | 4.3 | 0.5 | 2.3 | 2.5 |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7.1.13. 발표한 「2017년 경제전망」 참고
2. 2016 하반기e),연간e), 2017e), 2018e)은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 2. 고용3)

- 2016년 4/4분기 취업자수는 2,64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함.
  -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조업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농림어업은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건설업은 증가세가 둔화됨.
  - 상용직과 자영업자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임시 일용직은 감소세가 지속됨.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되고, 무급가족 종사자는 감소로 전환됨.
  -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청년층 취업자도 증가로 전환됨.
- 2016년 4/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73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함.
  - 고령층이 대부분인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였으며, 제조업 부진 등이 고용 증가세를 제약하고 있음.

3) 고용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6.12월 고용동향(2017.1.11.)」와 「최근경제동향(2017.1)」, 통계청 보도자료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2017.1.11.)」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 고용동향

단위: 천명, %

| | 2015 | | | 2016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
| | 연간 | 3/4 | 4/4 | 연간 | 3/4 | 4/4 | |
| 경제활동인구 | 26,536 | 26,356 | 27,140 | 26,913 | 27,539 | 27,327 | 1.3 |
| (경제활동참가율) | 62.4 | 61.5 | 63.2 | 62.6 | 63.4 | 62.8 | 0.5 |
| 취 업 자 | 25,599 | 25,267 | 26,098 | 25,936 | 26,554 | 26,446 | 1.2 |
| · 농 림 어 업 | 1,452 | 1,092 | 1,505 | 1,345 | 1,413 | 1,276 | −1.0 |
| · 광 공 업 | 4,343 | 4,428 | 4,479 | 4,500 | 4,458 | 4,460 | −2.3 |
| (제 조 업) | 4,330 | 4,418 | 4,466 | 4,486 | 4,439 | 4,439 | −2.4 |
| · 건 설 업 | 1,796 | 1,756 | 1,857 | 1,823 | 1,882 | 1,921 | 4.7 |
| · 도소매·음식숙박업 | 5,889 | 5,984 | 5,927 | 5,962 | 6,084 | 6,043 | 1.4 |
| 실 업 자 | 937 | 1,089 | 1042 | 976 | 985 | 881 | 4.3 |
| 실업률(계절조정) | − | 3.6 | 3.8 | − | 3.8 | 3.6 | 2.9 |

자료: 통계청

## 3. 소비[4)]

- 2016년 3/4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5%, 2.7% 증가함.
- 2016년 11월 소매판매는 의식료품 등 비내구재(0.6%)가 증가하였으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1.2%), 의복 등 준내구재(−0.4%) 판매가 감소하며 전월 대비 0.2% 감소함.
- 12월 소매판매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 휘발유·경유 판매량, 신용카드 승인액이 증가함.
- 2016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4만 5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실질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함.
  - 임금상승으로 근로소득이 1.9% 증가하였고 사업소득은 1.1%, 이전소득은 0.4% 증가하였으나, 이자소득 등이 줄어 재산소득은 31.9% 감소함.
  - 경상소득은 1.4% 증가한 반면, 비경상소득은 23.4% 감소함.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7.1)」와 통계청 보도자료 「2016년 3/4분기 가계 동향(2016.11.18)」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 소 비 동 향

단위: %

| | 2015 | | | | | 2016 | |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10월p | 11월p |
| 민 간 소 비 | – | 1.5 | 1.7 | 2.2 | 3.3 | 2.2 | 3.3 | 2.7 | – | – |
| 소 매 판 매 | 3.9 | 2.2 | 3.4 | 3.6 | 6.1 | 4.6 | 6.2 | 3.6 | 2.5 | 3.2 |
| (내 구 재)[1] | 10.2 | 4.3 | 0.8 | 2.0 | 8.2 | −6.3 | 7.6 | −7.1 | 10.8 | −1.2 |
| (준내구재)[2] | −1.2 | −2.0 | −1.0 | 1.8 | 2.8 | −2.0 | 2.2 | −0.7 | 3.8 | −0.4 |
| (비내구재)[3] | 2.5 | 0.6 | 1.2 | 0.7 | 0.3 | 2.6 | 0.4 | 1.3 | 3.1 | 0.6 |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16년 10월p, 11월p)은 전망치임.
5. 민간소비와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는 전분기와 전월 대비 증감률임.
자료: 기획재정부

- 2016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341만 7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함.
  - 소비지출은 257만 9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고, 비소비지출은 83만 8천원으로 0.5% 증가함.
  - 가전기기 및 가구 구입 증가, 보험료 및 외식비 지출 증가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18.4%), 기타 상품 및 서비스(7.1%), 음식·숙박(1.3%) 등이 증가함.
  - 반면, 과일 및 곡물 등 물가 하락, 유가 하락에 따른 운송기구 연료비 감소로 식료품(−3.2%), 교통(−2.2%), 보건(−3.8%) 등은 감소함.
- 2016년 3/4분기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36만 8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함.
  - 가격 하락 등으로 과일 및 가공품, 곡물 지출이 각각 3.8%, 1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1월 소비심리지수[5]는 93으로 전년 동월(100) 대비 7.0%, 전월(94) 대비 1.1% 감소함.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나타냄.

## 전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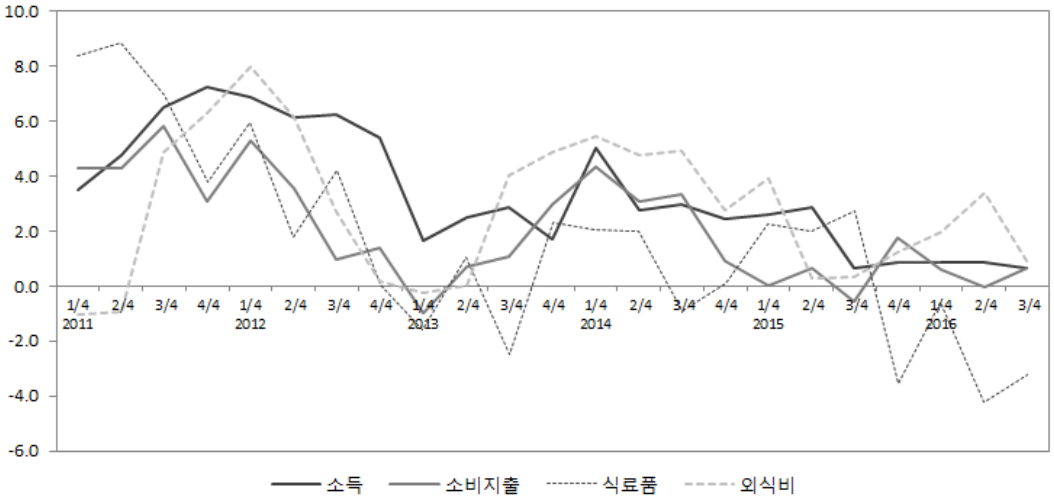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 2015 | | | | | 2016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 소 득 | 1.6 | 2.6 | 2.9 | 0.7 | 0.9 | 0.8 | 0.8 | 0.7 |
| (경상소득) | 1.6 | 2.8 | 2.1 | 0.8 | 1.1 | 0.8 | 1.7 | 1.4 |
| (비경상소득) | 1.6 | −2.1 | 25.9 | −4.7 | −4.8 | 2.3 | −21.4 | −23.4 |
| 소 비 지 출 | 0.5 | 0.0 | 0.7 | −0.5 | 1.7 | 0.6 | 0.0 | 0.7 |
| (식료품·비주류음료) | 0.8 | 2.3 | 2.0 | 2.7 | −3.5 | −0.6 | −4.2 | −3.2 |
| (의류·신발) | −4.4 | −5.3 | −3.4 | −3.5 | −5.2 | −1.8 | −2.5 | 1.0 |
| (교 통) | −3.7 | −4.5 | −4.4 | −12.5 | 6.7 | 2.5 | 1.4 | −2.2 |
| (교 육) | −0.4 | −1.6 | −1.6 | −1.1 | 3.2 | −0.4 | −0.7 | 1.3 |
| (음식·숙박) | 1.4 | 3.8 | 0.3 | 0.4 | 1.1 | 2.2 | 3.6 | 1.3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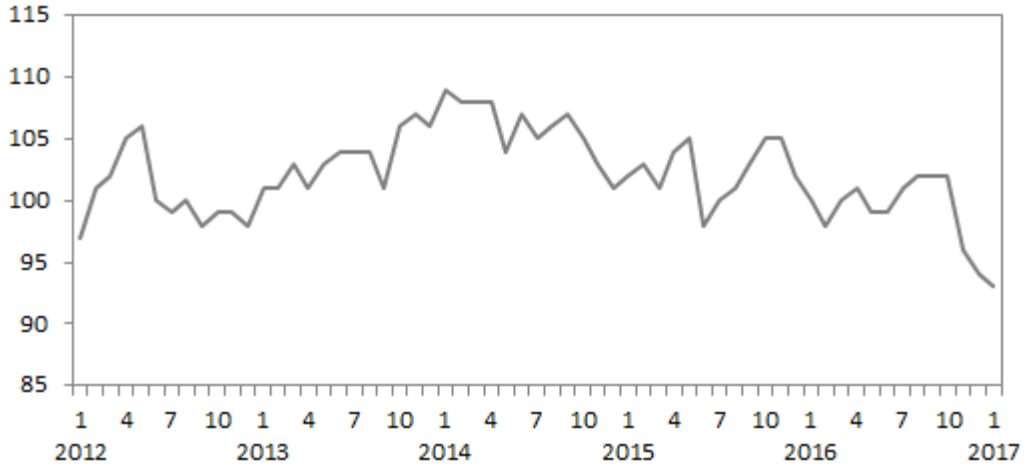
## 식료품 및 음식 소비지출 변화추이

단위: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통계청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 4. 물가[6)]

- 2016년 4/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15년 100을 기준)는 101.5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함.
  - 농축산물은 채소 가격이 상승하였고, 석유류는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상승함.
- 상품 및 서비스부문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0.7%, 2.1% 상승함.
  - 신선 농축수산물 가격은 2016년 여름과 가을 기상변화로 전년 동기 대비 7.5% 상승하였으며, 전기·수도·가스 가격은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로 하락함.

6) 물가 부문은 기획재정부 「2016년 12월 소비자물가동향(2016.12.30.)」, 통계청 「2016년 12월 소비자물가동향(2016.12.30.)」, 한국은행 「2016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2017.1.19.)」와 「2016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2017.1.11.)」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16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1.6로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함.
  - 농축수산물은 기상이변과 조류독감 발생으로 가격이 올라 전월 대비 상승함. 공업제품은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3%, 0.6% 상승하였으나 전기·수도·가스는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3%, 11.5% 하락함.
- 지출목적별로는 전월에 비해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음식·숙박, 의류·신발 등은 상승하였고 주택·수도·전기·연료와 오락·문화 등은 하락함. 주류·담배, 통신, 교육 등은 변동이 없음.
  -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교육, 오락·문화,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등은 상승하였고, 주택·수도·전기·연료는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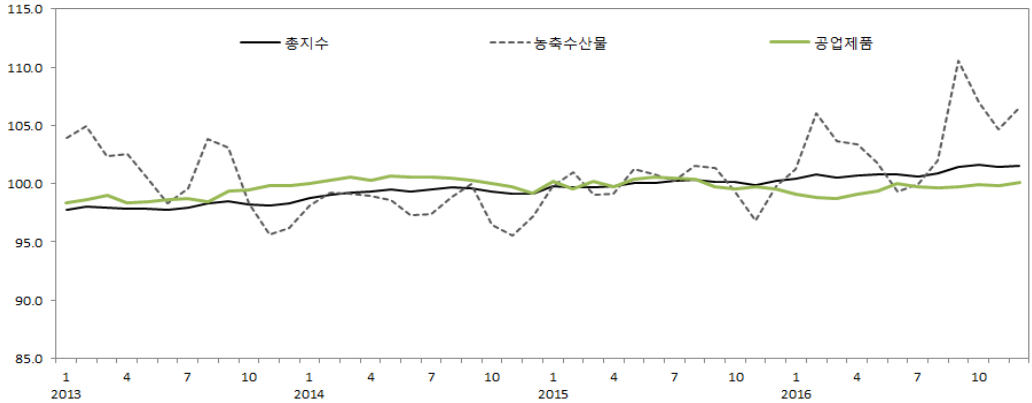
##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 | 2015 | | | | 2016 |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 총 지 수 | 99.7<br>(0.7) | 99.9<br>(0.6) | 100.2<br>(0.6) | 100.1<br>(0.9) | 100.6<br>(0.9) | 100.8<br>(0.8) | 101.0<br>(0.7) | 101.5<br>(1.5) |
| 상 품 | 100.4<br>(−0.5) | 100.2<br>(−0.8) | 100.0<br>(−1.0) | 99.5<br>(−0.5) | 99.4<br>(−1.0) | 99.2<br>(−1.0) | 98.9<br>(−1.1) | 100.2<br>(0.7) |
| 농축수산물 | 99.9<br>(1.1) | 100.4<br>(2.2) | 101.0<br>(2.3) | 98.7<br>(2.3) | 103.7<br>(3.7) | 101.5<br>(1.1) | 104.2<br>(3.1) | 106.0<br>(7.5) |
| 공업 제품 | 100.0<br>(−0.3) | 100.2<br>(−0.3) | 100.2<br>(−0.2) | 99.6<br>(−0.1) | 98.9<br>(−1.1) | 99.5<br>(−0.7) | 99.7<br>(−0.5) | 100.0<br>(0.4) |
| 서 비 스 | 99.2<br>(1.7) | 99.8<br>(1.6) | 100.5<br>(2.0) | 100.6<br>(2.1) | 101.6<br>(2.4) | 102.1<br>(2.4) | 102.7<br>(2.2) | 102.7<br>(2.1) |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16년 4/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106.0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전분기 대비 1.8% 상승함.
  -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9.1%, 전분기 대비 2.5% 상승함. 쌀값 하락으로 곡물류는 전년 동기보다 하락하였으나, 채소류는 무, 양파 등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함.

##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년=100)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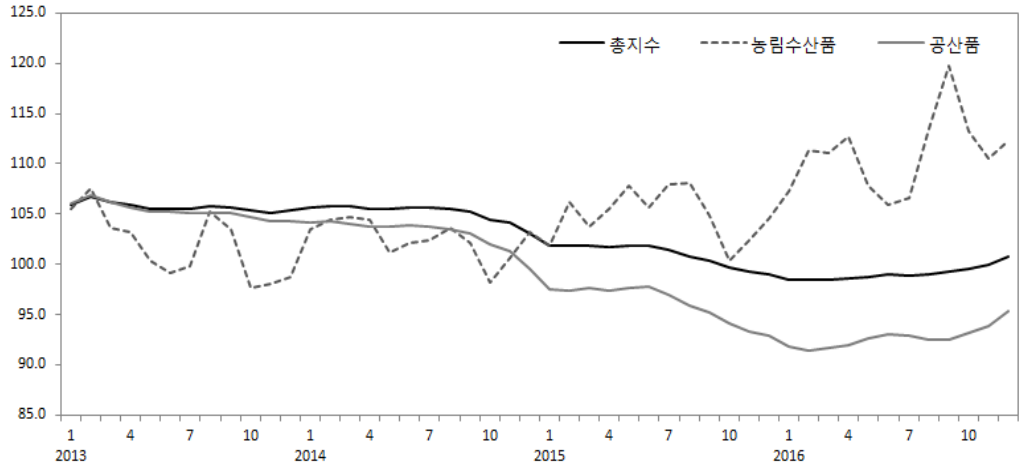
##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 | 2015 | | | | 2016 | | | | 등락률(%)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전년 동기 대비 | 전분기 대비 |
| 농축수산물 | 99.9 | 100.4 | 101.0 | 98.7 | 103.7 | 101.5 | 104.2 | 106.0 | 7.5 | 1.8 |
| 농산물 | 100.9 | 101.0 | 101.1 | 97.0 | 105.7 | 100.4 | 103.3 | 105.9 | 9.1 | 2.5 |
| 곡물 | 100.8 | 100.2 | 99.8 | 99.2 | 95.7 | 92.7 | 90.9 | 87.7 | -11.6 | -3.5 |
| 채소 | 102.6 | 99.6 | 102.4 | 95.4 | 119.0 | 107.0 | 118.0 | 123.7 | 29.7 | 4.8 |
| -배추 | 71.2 | 121.6 | 127.8 | 79.5 | 114.7 | 169.1 | 230.1 | 164.6 | 107.2 | -28.5 |
| -무 | 89.0 | 103.5 | 125.6 | 82.0 | 113.8 | 139.1 | 146.9 | 193.9 | 136.5 | 32.0 |
| -양파 | 85.6 | 91.6 | 107.4 | 115.4 | 125.2 | 142.3 | 131.5 | 129.6 | 12.3 | -1.4 |
| -마늘 | 69.1 | 85.8 | 111.6 | 133.5 | 146.1 | 106.0 | 81.8 | 94.3 | -29.4 | 15.3 |
| -파 | 84.3 | 102.2 | 113.0 | 100.6 | 136.3 | 110.0 | 101.7 | 133.0 | 32.3 | 30.8 |
| 과실 | 98.9 | 102.9 | 101.1 | 97.1 | 98.7 | 98.5 | 96.6 | 99.6 | 2.6 | 3.1 |
| 축산물 | 97.6 | 99.2 | 102.4 | 100.9 | 101.1 | 102.9 | 106.6 | 106.9 | 6.0 | 0.3 |
| 수산물 | 101.5 | 100.7 | 97.9 | 99.9 | 101.7 | 102.7 | 102.3 | 104.8 | 4.9 | 2.4 |

자료: 통계청

- 2016년 3/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던 생산자물가지수는 4/4분기 상승으로 전환됨. 2016년 4/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0.1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0.8%, 1.0% 상승함.
  -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2016년 3/4분기까지 3분기 연속 상승하였으나, 4분기는 전분기 대비 1.1% 하락(전년 대비 9.4% 상승)함.
  - 공산품은 제1차 금속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올라 전분기 대비 1.3% 상승함.

##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자료: 통계청

- 2016년 4/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83.5로 전분기 대비 6.9%,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함.
- 12월 수출물가지수는 86.1로 원/달러 환율과 전기 및 전자기기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9%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1.4%,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함.

- 2016년 4/4분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03.1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상승함. 12월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03.8로 전월과 동일하고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함.
- 2016년 4/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83.4로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함. 12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전기 및 전자기기,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2.9%,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함.

##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0년=100)

| | 2015 | | | 2016 | | | | |
|---|---|---|---|---|---|---|---|---|
| | 연간 | 3/4 | 4/4 | 연간 | 3/4 | 4/4 | 11월 | 12월 |
| 총 지 수 | 83.5 | 85.4 | 81.3 | 80.7 | 78.1 | 83.5 | 83.7 | 86.1 |
| | (-5.2) | (-1.9) | (-7.1) | (-3.4) | (-8.5) | (2.7) | (-3.5) | (6.3) |
| 농림수산품 | 91.6 | 95.5 | 91.8 | 101.6 | 102.6 | 103.1 | 103.8 | 103.8 |
| | (-0.2) | (3.5) | (-0.3) | (10.9) | (7.4) | (12.3) | (-3.5) | (6.3) |
| 농 산 물 | 145.8 | 153.7 | 146.7 | 143.9 | 152.8 | 133.7 | 131.5 | 133.9 |
| | (-1.0) | (4.0) | (7.4) | (-1.3) | (-0.6) | (-8.9) | (-3.5) | (6.3) |
| 공 산 품 | 83.5 | 85.3 | 81.2 | 80.6 | 78.0 | 83.4 | 83.6 | 86.0 |
| | (-5.2) | (-1.9) | (-7.1) | (-3.5) | (-8.6) | (2.7) | (-3.5) | (6.3) |

주: ( )는 전년 동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16년 4/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80.3으로 전분기 대비 7.1%, 전년 동기 대비 4.0% 상승함.
- 2016년 12월 수입물가지수는 국제 유가 및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전월 대비 4.1%,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한 83.1임.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3.1%, 전년 동월 대비 8.0% 상승함.
  - 원재료의 경우, 공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1.6% 상승하고, 중간재와 자본재, 소비재는 전월 대비 각각 2.7%, 0.4%, 0.9% 상승함.
- 2016년 12월 농림수산품 수입물가지수는 98.4로 전년 동월 대비 7.1% 상승함.

###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0년=100)

| | 2015 | | | 2016 | | | | |
|---|---|---|---|---|---|---|---|---|
| | 연간 | 3/4 | 4/4 | 연간 | 3/4 | 4/4 | 11월 | 12월 |
| 총 지 수 | 80.4 | 81.3 | 77.2 | 77 | 75.0 | 80.3 | 79.8 | 83.1 |
| | (-15.3) | (-13.6) | (-14.1) | (-4.2) | (-7.7) | (4.0) | (3.6) | (9.1) |
| 농림수산품 | 94.1 | 95.2 | 91.7 | 93.7 | 91.9 | 96.5 | 97.2 | 98.4 |
| | (-4.9) | (-1.9) | (-8.7) | (-0.4) | (-3.5) | (5.2) | (6.5) | (7.1) |
| 농 산 물 | 85.0 | 86.3 | 82.2 | 82.2 | 80.2 | 83.8 | 84.9 | 85.8 |
| | (-7.1) | (-1.7) | (-9.6) | (-3.3) | (-7.1) | (1.9) | (3.3) | (4.6) |
| 축 산 물 | 115.0 | 115 | 112.3 | 115.9 | 114.9 | 84.2 | 121.4 | 123.5 |
| | (-4.9) | (-5.9) | (-11.7) | (0.8) | (-0.1) | (-25.0) | (8.9) | (9.5) |
| 공 산 품 | 83.8 | 85.5 | 82.9 | 93.1 | 81.1 | 84.2 | 84.4 | 86.1 |
| | (-5.8) | (-2.6) | (-5.4) | (11.1) | (-5.1) | (1.6) | (2.4) | (3.6) |

주: ( )는 전년 동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5. 금융·환율[7)]

- 2016년 11월 중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12.5%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1.0% 증가)함.
- 2016년 11월 중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5%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전신탁 등은 증가한 반면, MMF, 기타통화성금융상품 등은 감소함. 경제주체별로는 가계와 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6% 증가)함.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2016년 11월중 통화 및 유동성(2017.1.12.)」와 「2016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2017.1.12.)」, 「2016년 4/4분기 외환시장 동향(2017.1.19.)」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 대비)

| | 2015 | 2016 | | | | | | | | | | |
|---|---|---|---|---|---|---|---|---|---|---|---|---|
|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M1[1] | 19.6 | 20.7 | 19.4 | 18.8 | 18.0 | 16.2 | 15.9 | 13.8 | 13.0 | 12.9 | 12.5 | 12.5 |
| M2[2] | 7.5 | 8.1 | 8.3 | 7.8 | 7.0 | 6.7 | 7.1 | 6.9 | 7.2 | 6.9 | 7.1 | 7.3 |
| Lf[3] | 8.9 | 8.9 | 8.9 | 8.6 | 8.0 | 7.7 | 7.9 | 7.6 | 8.0 | 7.8 | 8.1 | 8.2 |
| 본원통화[4] | 16.3 | 15.9 | 15.8 | 14.6 | 17.3 | 15.5 | 14.4 | 11.4 | 14.1 | 12.3 | 12.3 | 11.8 |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6년 12월 국고채금리는 미국채금리와 함께 하락함.
  - 국고채(3년)금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미국채금리와 함께 하락함.
  - 회사채금리는 우량물 및 비우량물 모두 국고채(3년)금리보다 큰 폭 하락함.
  - 단기시장금리의 경우 통안증권(91일) 및 은행채(3개월)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CD(91일)금리도 여타 시장금리 하락 등을 반영하여 소폭 하락함.

## 금리동향

단위: %

| | 2016 |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국고채(3년) | 1.63 | 1.47 | 1.50 | 1.47 | 1.46 | 1.33 | 1.22 | 1.24 | 1.31 | 1.36 | 1.61 | 1.69 |
| 회사채[1] | 1.49 | 1.49 | 1.49 | 1.49 | 1.49 | 1.28 | 1.23 | 1.23 | 1.24 | 1.23 | 1.23 | 1.22 |
| CD유통수익률(91일) | 1.67 | 1.64 | 1.63 | 1.61 | 1.58 | 1.43 | 1.36 | 1.35 | 1.34 | 1.35 | 1.42 | 1.54 |
| 콜금리[2] | 2.09 | 1.95 | 1.98 | 1.94 | 1.91 | 1.79 | 1.65 | 1.65 | 1.70 | 1.78 | 2.02 | 2.16 |

주 1.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2016년 4/4분기 원/달러 환율은 1,157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36원 상승하였으나, 원/100엔 환율은 전분기 대비 37원 하락한 1,058원임.

- 2016년 4/4분기 원/유로 환율은 1,247원으로 4원 하락하고 원/위안 환율 169원으로 1원 상승함.

● 2016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161원으로 전년에 비해 30원 상승하여 달러화 강세 기조로 인한 원화가치는 2.5% 평가절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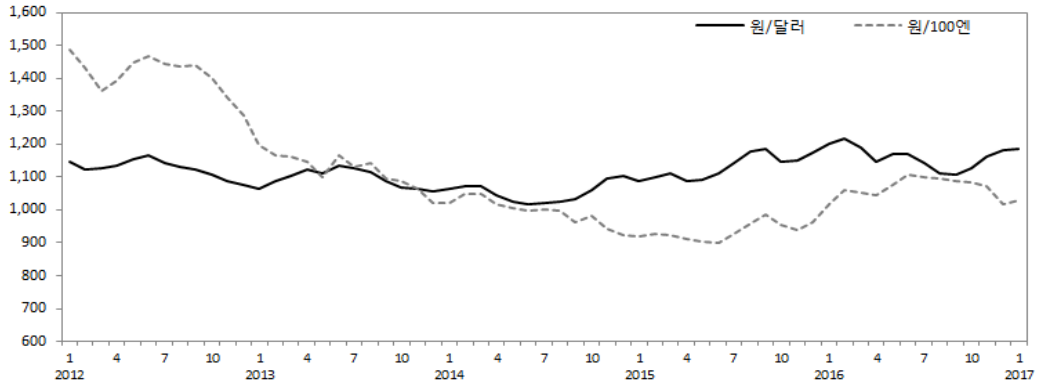
- 2015년 연평균 원/100엔 환율은 1,068원으로 전년보다 134원 상승하여 원화는 엔화 대비 12.6% 평가절하됨.
- 원/위안 환율은 174원으로 전년보다 5원 하락하여 원화는 위안화 대비 2.9% 평가절상됨.

## 원화 환율 동향

| | 2015 | | | 2016 | | | | |
|---|---|---|---|---|---|---|---|---|
| | 연간 | 3/4 | 4/4 | 연간 | 3/4 | 4/4 | 11월 | 12월 |
| 원/달러 | 1,131 | 1,168 | 1,158 | 1,161 | 1,121 | 1,157 | 1,162 | 1,182 |
| 원/100엔 | 935 | 956 | 953 | 1,068 | 1,095 | 1,058 | 1,074 | 1,019 |
| 원/유로 | 1,255 | 1,299 | 1,268 | 1,283 | 1,251 | 1,247 | 1,246 | 1,258 |
| 원/위안 | 180 | 185 | 181 | 174 | 168 | 169 | 171 | 172 |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 Ⅱ. 농촌경제 동향[8)]



## 1. 농촌 물가

### 1.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16년 4/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6.6으로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각각 3.3%, 8.7% 상승함.
  - 채소, 과실, 축산류는 전년 동기보다 상승한 반면, 곡물류는 전년 동기보다 하락함.
-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5.3으로 가중치가 가장 큰 미곡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10.4%, 2.7% 하락함.
  - 미곡은 일반미, 찹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0% 하락함.
  - 두류/잡곡은 콩, 팥, 검정콩 등의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보다 24.7% 상승함.
  - 서류는 고구마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하락함.
- 채소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8.1로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각각 15.8%, 18.1% 상승함.
  - 엽채류는 배추, 양배추를 비롯한 대부분의 품목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각각 50.6%, 26.3% 상승함.
  - 근채류는 무, 당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 상승함.
  - 조미채류는 마늘, 양파, 생강 등이 하락하였으나, 고추, 파, 풋고추 등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1.0% 상승함.

8)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라이 연구원(kimlai@krei.re.kr), 우병준 연구위원(bjwoo@krei.re.kr)이 작성함.

- 과채류는 오이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상승하여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각각 8.2%, 21.5% 상승함.

● 과실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64.9로 포도, 감귤, 감 등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각각 9.0%, 41.1% 상승함.

●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3.5로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3.2% 하락함.

- 가축은 송아지, 닭 등이 상승하였으나, 대부분 축종이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함.

● 기타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1.1로 전년 동기 대비 3.3% 하락함.

## 농가판매가격지수(2010년=100)

| 구 분 | 가중치 | 2015 | | | 2016 | | | 등락률(%) | |
|---|---|---|---|---|---|---|---|---|---|
| | | 연간 | 3/4 | 4/4 | 연간 | 3/4 | 4/4 | 전년 동기 대비 | 전분기 대비 |
| 총 지수 | 1000.0 | 113.8 | 107.5 | 112.9 | 113.4 | 107.3 | 116.6 | 3.3 | 8.7 |
| 곡물 | 280.1 | 109.6 | 110.5 | 106.4 | 99.4 | 97.9 | 95.3 | -10.4 | -2.7 |
| -미곡 | 234.3 | 112.7 | 115.0 | 108.9 | 100.1 | 101.6 | 93.7 | -14.0 | -7.8 |
| -맥류 | 5.5 | 144.0 | 144.3 | 150.7 | 146.8 | 135.5 | 157.2 | 4.3 | 16.0 |
| -두류/잡곡 | 23.9 | 73.3 | 60.9 | 79.5 | 80.9 | 56.2 | 99.1 | 24.7 | 76.3 |
| -서류 | 16.4 | 106.9 | 107.1 | 95.4 | 100.3 | 93.7 | 91.9 | -3.7 | -1.9 |
| 청과물 | 406.5 | 121.3 | 100.4 | 118.7 | 123.6 | 105.7 | 133.9 | 12.8 | 26.7 |
| -채소 | 268.9 | 103.2 | 93.1 | 102.0 | 107.4 | 100.0 | 118.1 | 15.8 | 18.1 |
| -과실 | 137.6 | 156.6 | 114.8 | 151.3 | 155.4 | 116.9 | 164.9 | 9.0 | 41.1 |
| 축산물 | 252.6 | 107.3 | 112.7 | 110.4 | 113.5 | 117.3 | 113.5 | 2.8 | -3.2 |
| -가축 | 185.1 | 104.2 | 112.1 | 111.1 | 115.7 | 120.5 | 110.8 | -0.3 | -8.0 |
| -유란 | 67.5 | 115.9 | 114.4 | 108.6 | 107.4 | 108.7 | 120.9 | 11.3 | 11.2 |
| 기타농산물 | 60.8 | 110.9 | 119.0 | 114.9 | 108.8 | 120.1 | 111.1 | -3.3 | -7.5 |
| -특용작물 | 42.4 | 120.2 | 136.8 | 124.0 | 117.0 | 137.5 | 118.3 | -4.6 | -14.0 |
| -화훼 | 15.3 | 89.5 | 75.4 | 95.9 | 90.7 | 79.0 | 94.8 | -1.1 | 20.0 |
| -부산물 | 3.0 | 88.6 | 90.0 | 84.5 | 86.2 | 84.3 | 92.2 | 9.1 | 9.4 |

자료: 통계청

## 1.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16년 4/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9.6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0.3% 하락함.
- 농업용품지수는 104.8로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각각 2.3%, 1.8% 하락함.
  - 농기구, 가축, 영농자재 등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비료, 영농광열비를 비롯한 대부분의 농업용품 가격은 하락함.
- 농촌임료금지수는 142.6으로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각각 5.0%, 1.1% 상승함.
  - 농업노동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5.2% 상승하였고, 농기계 임차료는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함.

### 농가구입가격지수(2010=100)

| 구 분 | 가중치 | 2015 | | | 2016 | | | 등락률(%) | |
|---|---|---|---|---|---|---|---|---|---|
| | | 연간 | 3/4 | 4/4 | 연간 | 3/4 | 4/4 | 전년 동기 대비 | 전분기 대비 |
| 총 지수 | 1000.0 | 109.0 | 109.7 | 109.1 | 109.3 | 109.9 | 109.6 | 0.5 | -0.3 |
| 가계용품 | 576.0 | 108.1 | 108.5 | 108.2 | 109.3 | 109.4 | 110.0 | 1.7 | 0.5 |
| 농업용품 | 376.9 | 107.3 | 108.4 | 107.3 | 105.6 | 106.7 | 104.8 | -2.3 | -1.8 |
| -종자 | 29.3 | 139.3 | 139.6 | 139.3 | 133.6 | 133.5 | 133.5 | -4.2 | 0.0 |
| -비료 | 39.0 | 80.1 | 80.1 | 80.1 | 63.5 | 63.5 | 63.5 | -20.7 | 0.0 |
| -농약 | 29.9 | 124.2 | 124.2 | 124.2 | 123.3 | 123.3 | 123.3 | -0.7 | 0.0 |
| -농기구 | 64.0 | 119.5 | 119.5 | 119.5 | 119.9 | 119.5 | 121.3 | 1.5 | 1.5 |
| -영농광열 | 26.7 | 85.3 | 86.8 | 82.3 | 71.0 | 73.3 | 74.5 | -9.5 | 1.6 |
| -가축 | 51.3 | 101.6 | 111.9 | 106.5 | 122.2 | 130.5 | 115.3 | 8.3 | -11.6 |
| -사료 | 125.0 | 106.0 | 104.8 | 104.8 | 102.0 | 101.7 | 101.0 | -3.6 | -0.7 |
| -영농자재 | 11.7 | 95.8 | 94.6 | 94.6 | 96.2 | 96.2 | 96.2 | 1.7 | 0.0 |
| 농촌임료금 | 47.1 | 134.6 | 135.8 | 135.8 | 140.2 | 141.1 | 142.6 | 5.0 | 1.1 |
| -농업노동임금 | 44.9 | 135.2 | 136.4 | 136.4 | 141.0 | 141.9 | 143.5 | 5.2 | 1.1 |
| -농기계임차료 | 2.2 | 122.5 | 123.4 | 122.5 | 123.6 | 124.0 | 124.6 | 1.7 | 0.5 |

자료: 통계청

## 1.3. 농업경영조건지수

- 가축류를 제외한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16년 4/4분기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108.1로 전년 동기보다 2.6% 하락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0.3% 상승함.
- 2016년 4/4분기 농업경영조건지수는 107.8로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각각 6.0%, 8.3% 상승함.
  - 농업투입재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여 농업경영조건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과 농업투입재가격은 각각 상승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농업경영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농업경영조건지수**

| 구 분 | 2015 | | 2016 | | 등락률(%) | |
|---|---|---|---|---|---|---|
| | 3/4 | 4/4 | 3/4 | 4/4 | 전년 동기 대비 | 전분기 대비 |
| 농가판매가격(A) | 107.5 | 112.9 | 107.3 | 116.6 | 3.3 | 8.7 |
| 농업투입재가격(B) | 111.3 | 111.0 | 107.8 | 108.1 | −2.6 | 0.3 |
| 농업경영조건(A/B×100) | 96.6 | 101.7 | 99.6 | 107.8 | 6.0 | 8.3 |

주: 농가투입재가격은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과 농촌임료금의 가중평균임.

# 2. 농림어업 취업자

- 2016년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27만 6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고, 전분기 대비 9.7% 감소함.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28만 9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나, 전분기 대비 2% 증가함.
  -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74만 5천 명, 여성은 2.7% 감소한 53만 1천 명임.

- 농가 취업자수는 155만 1천명으로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각각 7.1%, 7.9% 감소함.

##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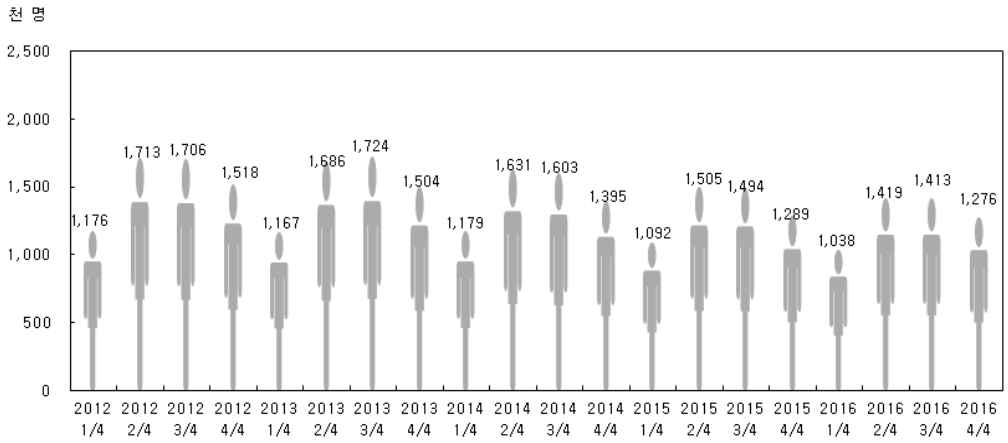
단위: 천명

| 구 분 | | 2015 | | 2016 | | 증감률(%) | |
|---|---|---|---|---|---|---|---|
| | | 3/4 | 4/4 | 3/4 | 4/4 | 전년 동기 대비 | 전분기 대비 |
| 취업자 | 전산업 | 26,237 | 26,143 | 26,554 | 26,446 | 1.2 | −0.4 |
| | (계절조정) | 25,971 | 26,119 | 26,282 | 26,421 | 1.2 | 0.5 |
| | 농림어업 | 1,494 | 1,289 | 1,413 | 1,276 | −1.0 | −9.7 |
| | (계절조정) | 1,336 | 1,302 | 1,263 | 1,289 | −1.0 | 2.0 |
| | 남성 | 834 | 743 | 802 | 745 | 0.3 | −7.1 |
| | 여성 | 661 | 546 | 611 | 531 | −2.7 | −13.0 |
| | 농가 | 1,878 | 1,670 | 1,686 | 1,551 | −7.1 | −7.9 |
| | 농가남성 | 1,037 | 945 | 932 | 879 | −7.0 | −5.6 |
| | 농가여성 | 841 | 725 | 754 | 673 | −7.2 | −10.7 |

주: (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16년 3/4분기까지 정체되었으나, 4/4 분기에 접어들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 3. 농축산물 수출입

## 3.1. 수출 동향

- 2016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물량은 102만 6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함.
  - 축산물과 임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39.5% 감소하였으나, 농산물은 2.4% 증가함.

###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 구 분 | 2015 | | | | 2016 |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
|---|---|---|---|---|---|---|---|---|---|---|
| | 3/4 | | 4/4 | | 3/4 | | 4/4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농림축산물 | 918 | 1,511 | 972 | 1,599 | 977 | 1,622 | 1,026 | 1,750 | 5.5 | 9.5 |
| 농산물 | 681 | 1,280 | 738 | 1,370 | 720 | 1,391 | 756 | 1,500 | 2.4 | 9.5 |
| -곡류 | 15 | 10 | 10 | 8 | 9 | 8 | 11 | 9 | 9.3 | 10.9 |
| -과실류 | 30 | 56 | 47 | 98 | 34 | 77 | 47 | 100 | 0.0 | 1.8 |
| -채소류 | 30 | 77 | 36 | 84 | 28 | 78 | 27 | 92 | -23.8 | 9.6 |
| 축산물 | 31 | 126 | 33 | 128 | 28 | 115 | 33 | 129 | -2.1 | 0.4 |
| -포유육류 | 1 | 5 | 2 | 11 | 1 | 7 | 2 | 10 | 3.5 | -6.9 |
| -가금육류 | 7 | 11 | 9 | 13 | 6 | 8 | 8 | 12 | -13.4 | -5.5 |
| -낙농품 | 21 | 112 | 9 | 46 | 21 | 112 | 10 | 55 | 7.9 | 19.0 |
| 임산물 | 207 | 105 | 200 | 101 | 229 | 116 | 121 | 18 | -39.5 | -81.8 |
| 수 산 물 | 156 | 472 | 163 | 496 | 161 | 567 | 158 | 563 | -3.1 | 13.6 |
| 전 체 | 1,075 | 1,983 | 1,135 | 2,094 | 1,138 | 2,189 | 1,184 | 2,313 | 4.3 | 1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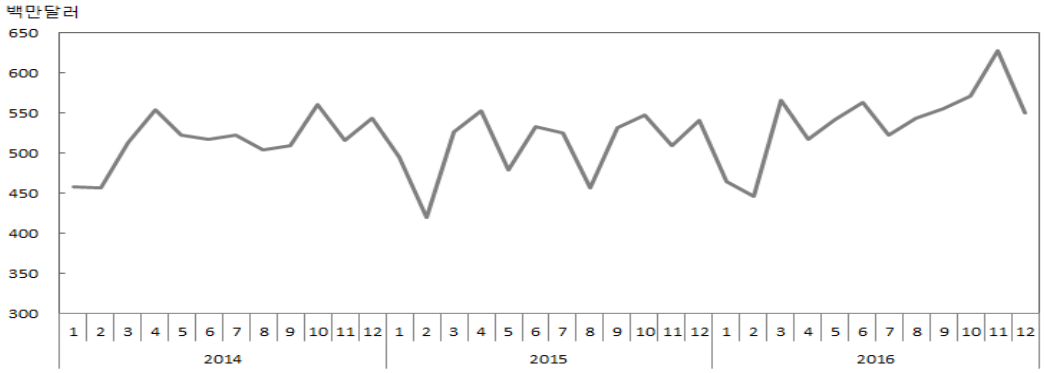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6년 4/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17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함.
  - 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9.5%, 축산물은 0.4% 증가하였으나, 임산물은 81.8% 감소함.
  - 농산물 중 곡류는 쌀, 밀, 팥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함. 채소류 수출액은 배추, 파프리카 등 수출액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하였으며, 과실류는 배, 감, 유자 등 수출액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함.

– 축산물 수출액은 포유육류, 가금육류는 하락하였으나, 낙농품 수출액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함.

- 2016년 12월 수출액은 5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12.4%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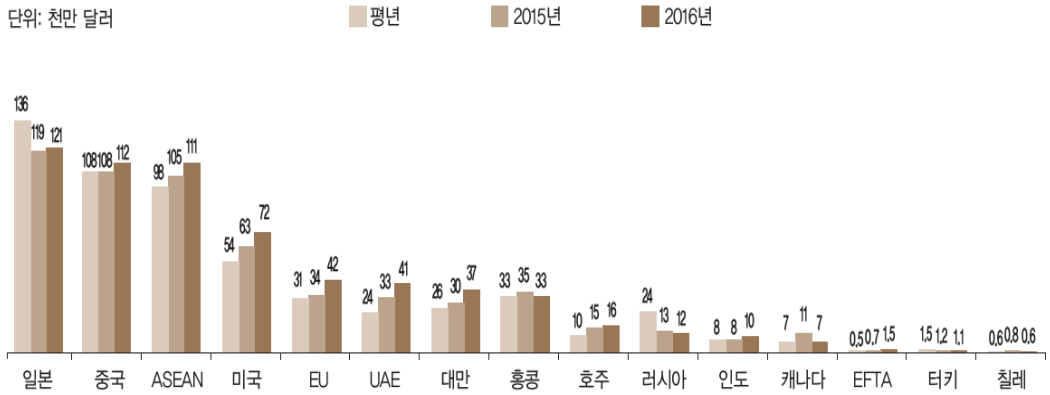
##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6년 주요 수출대상국 중 중국, ASEAN, 미국, EU, 호주, 인도 등으로의 누적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 그중 對미국 수출액(14.3%)이 가장 크게 증가함.

##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년 4분기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7년 1/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84.4로 전분기(97.2)보다 하락함[9]. 100이하의 지수가 지속되면서 수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상품의 제조원가, 수입규제, 통상마찰 등의 영향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수출 애로사항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 바이어 가격 인하 요구가 지적됨.

## 3.2. 수입 동향

- 2016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물량은 1,304만 1천 톤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하나, 축산물은 13.6% 증가함. 임산물은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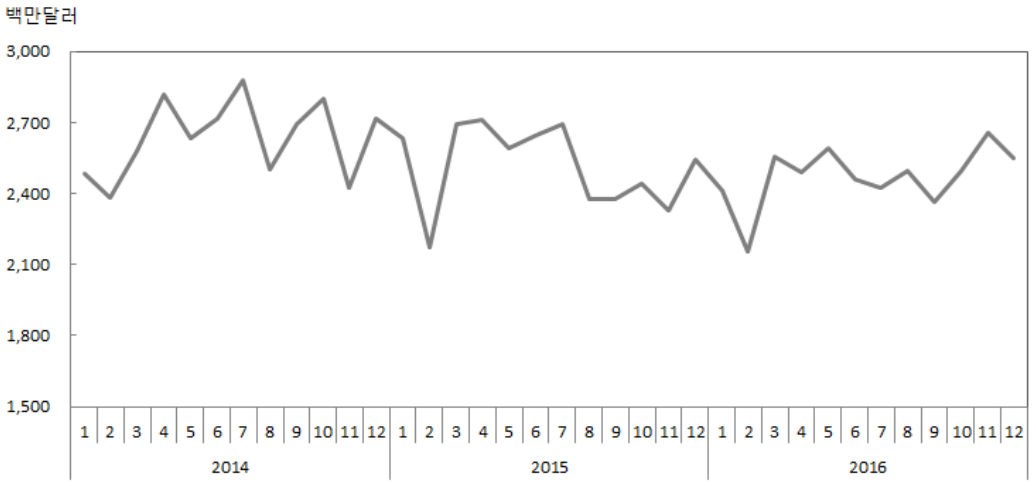
| 구 분 | 2015 | | | | 2016 |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
|---|---|---|---|---|---|---|---|---|---|---|
| | 3/4 | | 4/4 | | 3/4 | | 4/4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농림축산물 | 12,124 | 7,450 | 13,047 | 7,314 | 12,191 | 7,290 | 13,041 | 7,709 | 0.0 | 5.4 |
| 농 산 물 | 7,900 | 4,236 | 8,738 | 4,388 | 8,069 | 4,229 | 8,688 | 4,662 | −0.6 | 6.2 |
| −곡류 | 3,773 | 963 | 4,041 | 945 | 3,706 | 802 | 3,866 | 897 | −4.4 | −5.1 |
| −과실류 | 220 | 362 | 211 | 287 | 238 | 378 | 233 | 338 | 10.4 | 17.5 |
| −채소류 | 266 | 227 | 361 | 277 | 253 | 232 | 321 | 288 | −11.1 | 4.1 |
| 축 산 물 | 392 | 1,571 | 339 | 1,278 | 393 | 1,542 | 386 | 1,471 | 13.6 | 15.1 |
| −포유육류 | 233 | 949 | 189 | 750 | 241 | 970 | 222 | 928 | 17.4 | 23.7 |
| −가금육류 | 34 | 89 | 33 | 82 | 32 | 68 | 39 | 82 | 16.2 | 0.0 |
| −낙농품 | 59 | 196 | 59 | 190 | 66 | 193 | 73 | 215 | 23.4 | 12.9 |
| 임 산 물 | 3,833 | 1,642 | 3,969 | 1,647 | 3,729 | 1,519 | 3,967 | 1,576 | 0.0 | −4.4 |
| 수 산 물 | 1,242 | 1,065 | 1,639 | 1,235 | 1,502 | 1,170 | 1,406 | 1,344 | −14.2 | 8.8 |
| 전 체 | 13,366 | 8,515 | 14,686 | 8,549 | 13,693 | 8,459 | 14,447 | 9,053 | −1.6 | 5.9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9) 한국무역협회, '2016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2017.1.6).

- 2016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77억 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함.
  - 농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와 비슷하였으며, 축산물은 15.1% 증가한 반면, 임산물은 4.4% 감소함.
  - 농산물 중 곡류는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하였으나, 과실류와 채소류는 각각 17.5%, 4.1% 증가함.
- 2016년 12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5억 5,275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4.0%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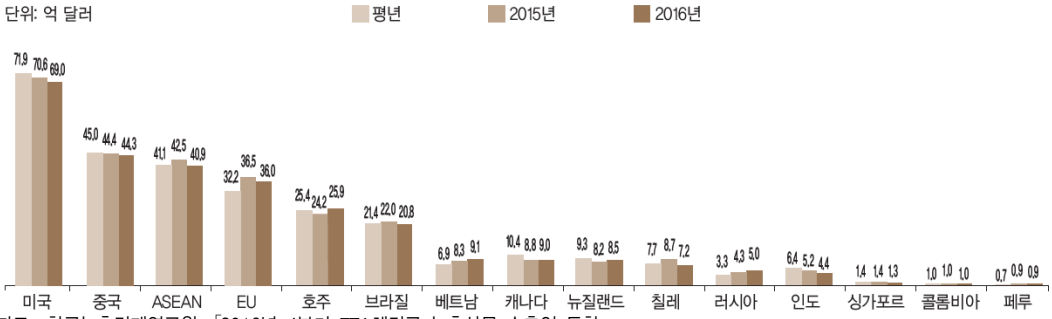
##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6년 미국, 중국, ASEAN, EU, 칠레, 인도, 싱가포르, 콜롬비아, 페루 등으로부터의 농축산물 누적수입액은 전년 대비 감소함. 그중 ASEAN산 수입액(-3.9%)이 가장 크게 감소함.
  - 2016년 곡물(-10.7%), 임산물(-5.9%) 누적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 과일·채소(1.4%), 가공식품(5.3%)은 증가함.

###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년 4분기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 3.3. 순수입 동향

- 2016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물량은 1,201만 5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함.
  - 농산물 순수입물량은 793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함.
  - 축산물 순수입물량은 35만 3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함.
- 2016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59억 5,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함.
  - 농산물은 4.0% 감소하였으나, 축산물은 16.8%, 임산물은 0.7% 증가함.

###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 구 분 | 2015년 4/4분기 | | 2016년 4/4분기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농림축산물 | 12,075 | 5,715 | 12,015 | 5,959 | −0.5 | 4.3 |
| 농 산 물 | 7,949 | 3,292 | 7,932 | 3,162 | −0.2 | −4.0 |
| 축 산 물 | 306 | 1,150 | 353 | 1,343 | 15.4 | 16.8 |
| 임 산 물 | 3,769 | 1,547 | 3,846 | 1,557 | 2.0 | 0.7 |
| 수 산 물 | 1,476 | 739 | 1,248 | 781 | −15.5 | 5.6 |
| 전 체 | 13,551 | 6,454 | 13,263 | 6,740 | −2.1 | 4.4 |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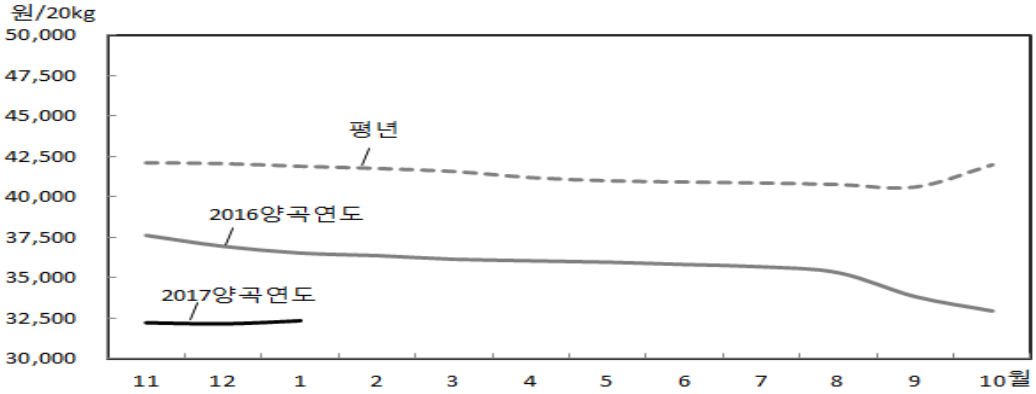
#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 1. 곡물[10)]

###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자료: 통계청

- 2016년 4/4분기 동향
  - 2016년산 쌀 생산량은 419만 7천 톤으로 전년 대비 3.0%(13만 톤) 감소하였으나 신곡예상수요량(390만 톤)보다는 초과 생산되어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함.
  - 정부의 조기 수확기 대책 공표와 신·구곡 시장격리 등으로 수확기 시장공급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쌀 가격의 전기 대비 가격하락률은 크게 둔화됨.

10)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태훈(taehun@krei.re.kr), 김종진 연구위원(jkim@krei.re.kr), 김종인 부연구위원(jonin@krei.re.kr), 승준호 전문연구원(jhseung@krei.re.kr), 김지연(jykim12@krei.re.kr), 조남욱(ukjo@krei.re.kr), 채주호(whiteshark@kre.re.kr), 박지원(jione1105@krei.re.kr), 임권택(lkt20000@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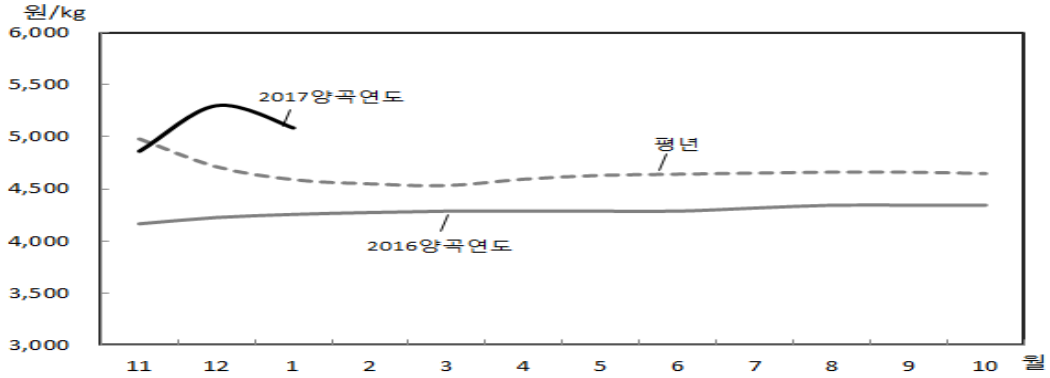
- 다만, 벼 수발아로 인한 품위저하와 연이은 역계절진폭 발생 등으로 인한 산지 유통업체의 심리적 불안감 등이 산지 쌀 가격 상승을 제한함.
- 2016년산 수확기 산지 평균 쌀 가격은 3만 2,452원/20kg으로 전년 대비 14.7% 하락함.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7년 1월 평균 산지 쌀 가격은 3만 2,355원/20kg으로 전년 대비 11.5% 하락한 반면 전월 대비 0.6% 상승함.
- 쌀 생산량 감소와 신·구곡 시장격리 등으로 2017양곡연도 쌀 연간시장공급량이 식용소비량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4분기 산지 쌀 가격은 강보합세로 전망됨.
- 농업관측본부 논벼 표본농가 조사결과, 2017년산 농가 벼 재배의향 면적은 76만 2천 ha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1.2. 콩

**국산콩(백태상품) 도매가격 추이**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6년 4/4분기 동향

- 통계청 발표(2016.12.22.)에 따르면, 2016년산 콩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3.5% 감소한 4만 9,014ha, 단수는 전년 대비 15.8% 감소한 154kg/10a으로 콩 생산량은 전년 대비 27.1% 감소한 7만 5,448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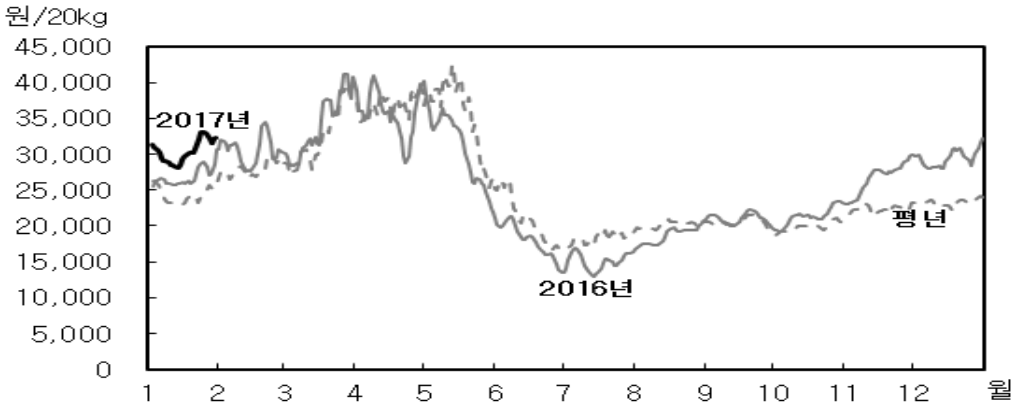
- 2016년 4/4분기 국산 콩 도매가격은 4,834원/kg으로 2016년산 콩 생산량 감소 및 수확기 강우로 수확기 지연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상승함.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7년 1월 국산 콩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9.5% 높으나, 전월 대비 4.0% 하락한 5,086원/kg임.
- 생산량 감소에도 생육기 가뭄과 수확기 강우에 따른 2016년산 콩의 품위 저하로 신곡수요가 적어 가격 상승효과가 일부 상쇄됨.
- 2017년 1월 이후 콩 가격은 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 1/4분기 국산 콩 도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1.3. 감자

**감자(수미상품) 도매가격 추이**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수미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25,836원으로 전년 동기 및 평년보다 각각 11.2%, 19.1%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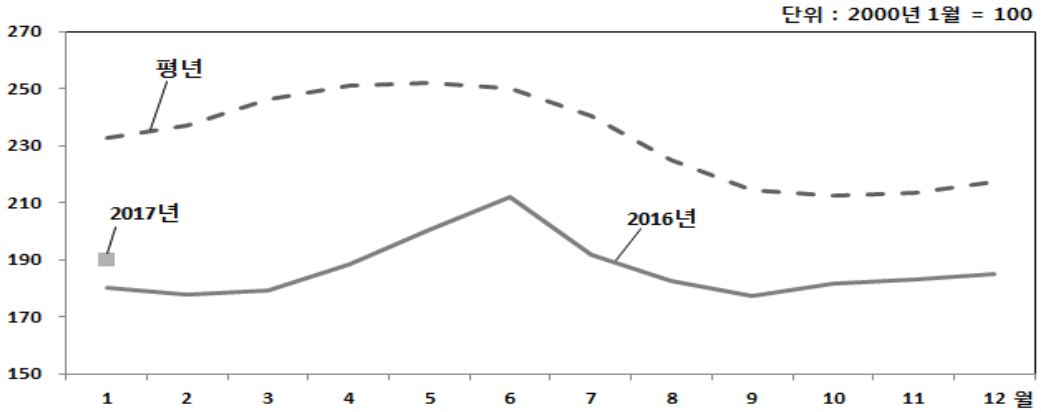
- 고랭지감자의 품위 저하로 저장량이 많지 않았으며, 가을감자도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함. 이에 따라 3/4분기 이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7년 1/4분기 수미 도매가격은 2016년산 가을감자 생산량 감소, 2017년 봄감자 재배의향면적 감소 등으로 전년(30,304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대지 도매가격도 2016년산 가을감자 생산량 감소, 겨울감자 재배(의향)면적 감소 등으로 전년(48,794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수익성 악화, 돌려짓기 등으로 2017년 시설 봄감자와 노지 봄감자 재배의향 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3.0%, 3.8%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1.4. 국제곡물

###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주: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 2016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곡물 주산지의 연이은 풍작으로 수급여건이 개선되었으며 세계 경제 저성장, 달러화 강세 등 거시경제 요인들이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분기와 비슷한(0.1% 상승) 184.0임.

- 다만, 금융자본의 상품시장 유입,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교역 및 금융 정책 등 선물가격 상승 요인이 존재함.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7년 1월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아르헨티나 강우, 주요 곡물 생산국 정책 변화 등 선물가격 상승 요인들이 존재하여 전월 대비 2.6% 상승한 189.7임.
- 2017년 1/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주요 곡물의 안정적인 수급 상황과 우호적인 거시경제 지표 등으로 전분기 대비 0.3% 하락한 183.4로 전망됨.
- 2016년 초 남미 기상악화에 따른 콩 가격 상승과 대체재인 팜유의 가격 상승으로 최근 국내 대두유 가격이 상승함. 2016년 2/4분기 당시 높은 가격에 구매된 콩이 국내에 도입되어 대두유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2017년 1/4분기 내 가격 안정이 전망됨.

● 2016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주요 곡물 주산지의 기상 호조로 인한 수급 여건 개선과 세계 경제 저성장, 달러화 강세 및 저유가 지속 등으로 전분기 대비 8.2% 하락한 183.7임.
- 주요 곡물들의 안정적인 수급상황과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에도 금융자본의 상품시장 유입 등 선물가격 상승 요인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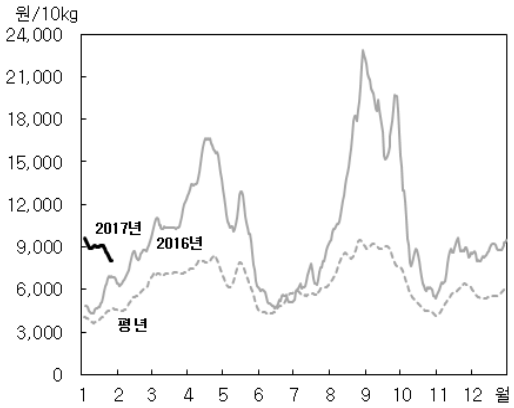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6년 10월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2016/17년 주요 곡물의 역대 최대 생산량 전망과 우호적인 거시경제 지표들에도 밀, 옥수수의 세계 재고량 하향 조정 및 10월 초 선물시장으로의 금융자본 유입으로 전월 대비 2.2% 상승한 181.0임.
- 2016년 4/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세계 경제 저성장, 달러화 강세, 주요 곡물 주산지의 작황 및 기상상황 호조로 전분기와 비슷한(0.1% 하락) 183.7로 전망됨.
- 금년 겨울 라니냐 발생이 전망되나, 강도가 약할 것으로 추정되어 곡물 주산지의 이상기상으로 인한 선물가격 변동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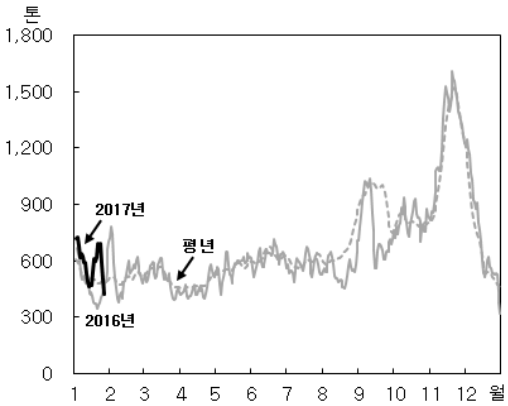
# 2. 엽근채소[11)]

## 2.1. 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가을 및 겨울배추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 2015년 및 평년보다 각각 102%, 103% 높았으나, 3/4분기보다는 39% 낮았음.
  - 가을배추 출하기 가격은 10월 8,230원/10kg, 11월 7,960원으로 김장배추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약세를 보였으나, 12월 가격은 잦은 강우 및 저온에 따른 겨울배추 작황 부진으로 8,770원까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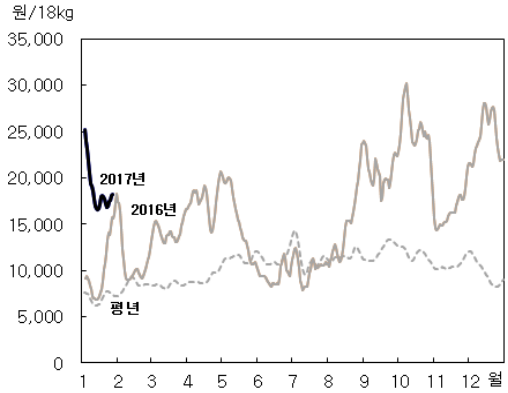
    * 4/4분기 가격: (2016년) 8,320원/10kg, (2015년) 4,120원, (평년) 4,100원

1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성우 연구위원(swootamui@krei.re.kr), 노호영 전문연구원(rhy81@krei.re.kr), 한은수(hanes012@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이동규(cafe0227@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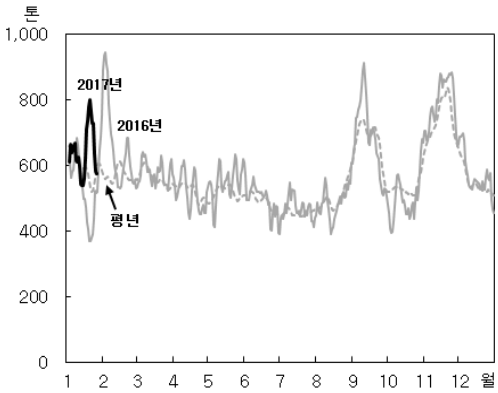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겨울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9~12% 감소한 28만~29만 톤으로 전망
    - * 겨울배추 재배면적: 작년보다 2~4% 감소한 3,415~3,488ha
    - * 겨울배추 단수: 해남 및 진도 집중호우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작년보다 7~8% 감소한 8,233~8,341kg/10a
  - 2017년 1/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겨울배추 작황 부진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 1/4분기 출하량은 겨울배추 작황 부진으로 작년보다 감소 전망. 특히 겨울배추 작황부진과 예년보다 빠른 1월 중순에 저장작업이 이루어지면서 1~2월 감소폭이 클 전망
- 2017년 봄배추 재배(의향)면적
  - 2017년 시설봄배추 재배의향은 겨울배추 출하기 가격이 높아 작년보다 25% 내외 증가 전망
    - * 시설봄배추 정식은 1월 하순 한파로 정식이 지연되었던 작년과 비슷한 2월 상순에 집중될 것으로 조사
    - * 평균 포전거래 가격은 평당 13,000~14,000원으로 가격이 높았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

## 2.2. 무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무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76% 높은 22,130원/18kg임.
  - 10월 가격은 고랭지무 출하량 감소와 가을무 출하지연으로 전년(7,850원)보다 높은 25,300원이었으며, 11월도 전년(8,490원)보다 높았으나, 가을무가 집중 출하되면서 10월보다는 하락한 16,450원이었음.
  - 12월 가격은 월동무 출하 지연으로 전년(7,750원)과 전월보다 높은 24,630원이었음.

    * 2016년 가격: (10월) 25,300원/18kg, (11월) 16,450원, (12월) 24,630원
    * 4/4분기 가격: (2016년) 22,130원/18kg, (2015년) 8,030원, (평년) 10,610원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6년산 월동무 생산량은 작년보다 13~21% 적은 21~23만 톤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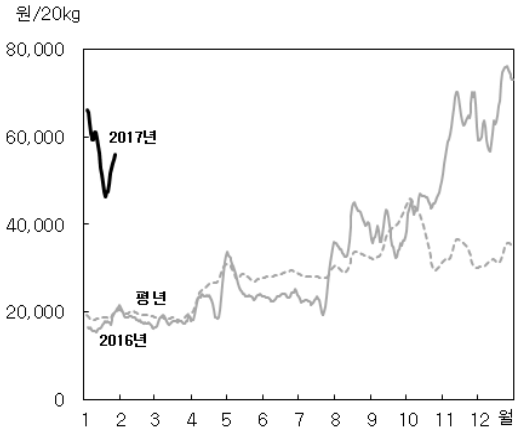
    *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3% 감소한 4,062ha
    * 단수는 작년보다 10~19% 감소한 5,074~5,629kg/10a
    * 생육기(9~10월) 일조부족과 10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작황부진
  - 1/4분기 무 출하량은 월동무 출하면적과 단수 감소로 작년보다 20% 내외 적을 것으로 전망됨.
  - 1/4분기 무 도매가격은 작년 및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봄무 재배의향면적
  - 2017년 시설봄무 재배의향은 작년보다 20% 내외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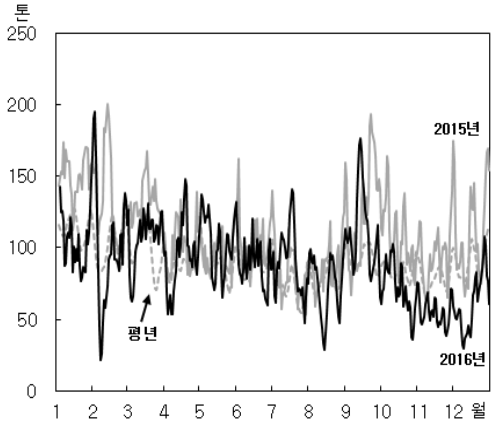
    * 주산지인 호남 나주, 고창지역은 작년보다 23% 증가, 충청지역은 17% 증가
    * 5월까지 출하되는 월동무 작황이 부진하여 산지유통인 계약재배가 증가함.

## 2.3. 당근

###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 당근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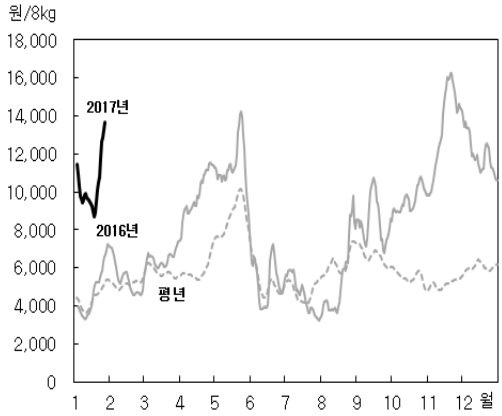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당근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태풍 등 기상 변화에 따른 가을, 겨울당근 생산량 감소로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각각 186%, 109% 상승한 상품 20kg당 58,490원임.
    * 4/4분기 가격: (2016년) 8,320원/20kg, (2015년) 4,120원, (평년) 4,100원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겨울당근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41% 감소한 3만 4천 톤으로 전망됨.
    * 2016년산 겨울당근 재배면적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2%, 11% 감소한 1,370ha, 추정단수는 생육기 잦은 강우 및 태풍 등으로 작황 부진해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33% 감소한 2,517kg/10a으로 추정됨.
  - 2017년 1/4분기 당근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1/4분기 당근 도매가격은 겨울당근 산지 및 저장 출하량 감소로 전년(17,925원)과 평년(18,855원)보다 높을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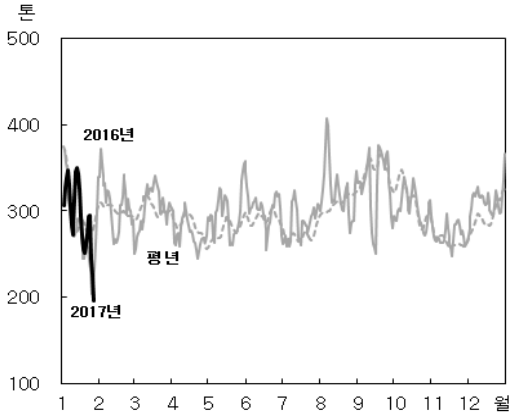
- 2017년 봄당근 재배(의향)면적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 결과, 2017년 봄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보다 1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작형별로는 시설과 노지봄당근이 전년보다 각각 13%,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4.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가을양배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로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각각 222%, 184% 하락한 상품 8kg당 11,210원임.
    * 4/4분기 가격: (2016년) 11,209원/8kg, (2015년) 3,479원, (평년) 3,942원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겨울양배추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37%, 35% 감소한 10만 8천톤으로 전망됨.
    * 2016년산 겨울양배추 재배면적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3%, 증가한 2,989ha, 추정단수는

생육기 한파 및 태풍 등으로 작황이 부진해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39%, 37% 감소한 3,625kg/10a로 추정됨.

- 2017년 1/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1/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은 겨울양배추 산지 출하량 감소로 전년(5,580원)보다 높을 전망임.

  * 또한 기상여건 변화로 양배추 상품성이 저하되어 품위 간 가격차가 클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봄양배추 재배의향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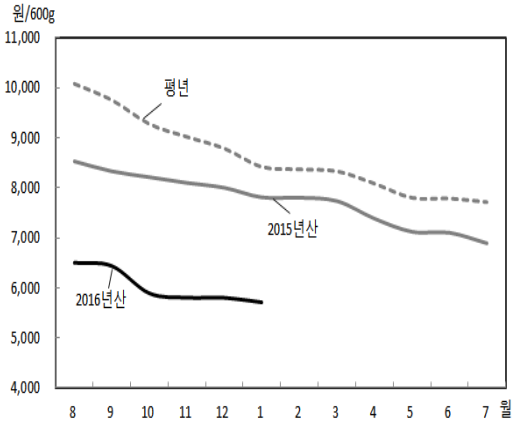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결과, 2017년 봄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보다 10% 증가하며 작형별로는 시설과 노지봄양배추가 전년보다 각각 15%,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아직 봄양배추 재배를 결정하지 못한 농가가 많고 겨울양배추 출하기 가격 상승에 따라 봄양배추 재배면적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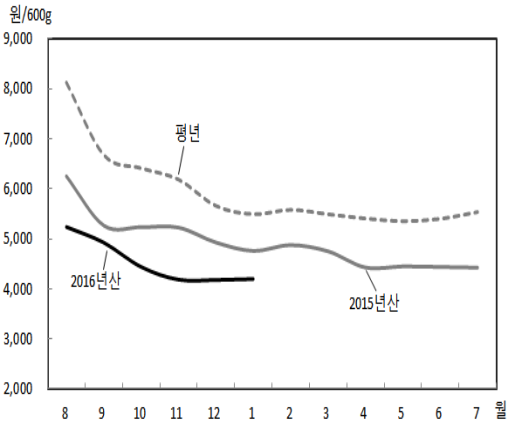
# 3. 양념채소[12)]

##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1년 8월~2016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 2016년 4/4분기 동향
  - 건고추(화건) 4/4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 동기 대비 각각 28%, 35% 낮은 5,830원,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화건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7% 낮은 4,270원이었음.
    * 도매가격: (금년) 5,830원/600g, (전년) 8,100원, (평년) 9,030원
    * 산지가격: (금년) 4,270원/600g, (전년) 5,130원, (평년) 6,090원
  -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4/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374톤) 대비 4% 적은 360톤임.
  - 2016년산 고추 수확기 생육 부진으로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이월 재고량이

12)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성우 연구위원(swootamui@krei.re.kr), 송성환 전문연구원(song9370@krei.re.kr), 이형용(lhy2813@krei.re.kr), 노수정(nosu303@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김서영(ksy1208@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많아 가격은 하락세를 보임.

- 2016년산 재배면적은 2015년산보다 7% 감소한 3만 2,179ha임(8. 26, 통계청).

## 2016년산 고추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전국 |
|---|---|---|---|---|---|---|---|---|
| 6.6 | −25.3 | −4.6 | −8.8 | 13.5 | −13.4 | −11.5 | −5.6 | −6.8 |

자료: 통계청

- 2016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3%, 15% 적은 8만 5,453톤임(11. 25, 통계청).

  * 7월 중순부터 지속된 고온·가뭄으로 해충과 석회결핍, 열과 등 생리 장해 발생이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감소함.

## 2016년산 건고추 생산량

단위: ha, kg/10a, 천 톤, %

| 연산 | | 재배면적 | 단수 | 생산량 |
|---|---|---|---|---|
| 2016 | | 32,179 | 266 | 85.5 |
| 2015 | | 34,514 | 283 | 97.7 |
| 평년 | | 41,351 | 242 | 99.9 |
| 증감률 | 전년 대비 | −6.8 | −6.2 | −12.5 |
| | 평년 대비 | −22.2 | 9.9 | −14.5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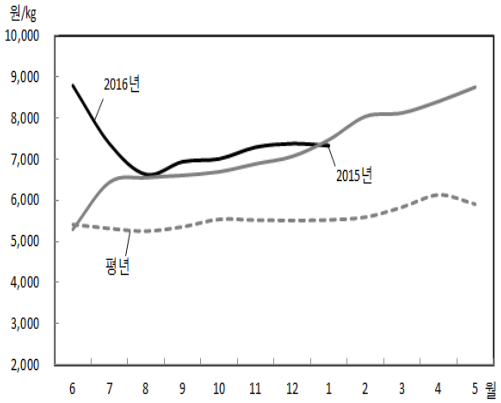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6년산으로 이월된 국내산 재고량이 많아 2017년 1/4분기 국내산 공급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
- 12월 김장철 이후 국내산 건고추 소비는 외식업체, 급식업체 등 대량수요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국내산 건고추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수요처에서의 수입산 고추에 대한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단기간에 국내산으로 소비를 전환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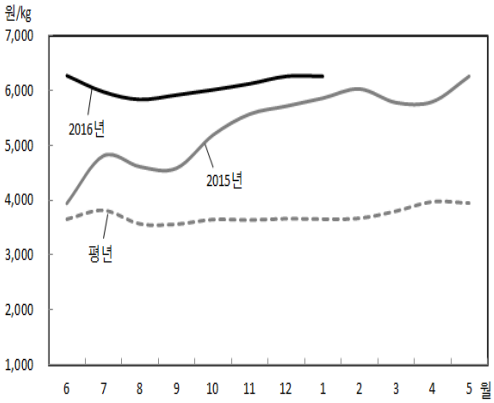
- 건고추 화건 상품 600g당 1월 평균 도매가격은 12월 대비 2% 하락한 5,710원으로 전년과 평년보다도 낮았음. 화건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과 평년 동월보다 각각 12%, 24% 낮은 4,200원이었음.
- 2017년 1/4분기 가격은 국내산 공급량이 많아 전년과 평년 동기 대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3.2. 마늘

**깐마늘 도매가격 동향**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1년 6월~2016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6년 4/4분기 동향
  - 깐마늘과 난지형 마늘 4/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2016년산 마늘 재고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수매가격 및 입고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각각 5%, 12% 높은 수준임.

    * 깐마늘 도매가격: (금년) 7,225원/kg, (전년) 6,882원, (평년) 5,522원

    * 난지형 도매가격: (금년) 6,133원/kg, (전년) 5,493원, (평년) 3,652원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7년 1월 깐마늘 가격은 2016년산 마늘 재고량 감소로 평년보다 높았으나,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던 전년보다 2% 낮은 수준임.
  - 2017년 1/4분기 마늘 도매가격은 2016년산 마늘 재고량 증가, 생산량 대비 저장률 증가로 전년보다 낮으나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임.
    * 2016년산 마늘 생산량과 저장량 수준에 따른 저장출하기 가격을 분석한 결과, 생산량 대비 입고율이 높아 9월~익년 4월의 가격 상승폭은 적을 전망
- 2016년 12월 말 기준, 마늘 재고량은 약 4만 7천 톤임.
  - 2016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9% 많으나, 평년보다 13% 적은 9만 3천 톤 내외임.
  - 저장업체 표본 조사 결과(1. 10), 12월 말 기준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전년보다 18% 많으나, 평년보다 13% 적은 수준임.
    * 12월까지의 난지형 마늘 출고량은 약 4만 3천 톤으로 남도종 마늘 출하 부진과 입고량 감소로 전년, 평년보다 각각 2%, 15% 적은 수준

## 2016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

단위: 톤, %

| 연산 | 입고량 | 출고량 | 감모량 | 재고량 |
|---|---|---|---|---|
| 2016 | 92,973 | 42,687 | 3,311 | 46,974 |
| 2015 | 85,576 | 43,595 | 2,196 | 39,786 |
| 평년 | 107,000 | 50,000 | 3,331 | 53,669 |
| 전년 대비 | 8.6 | −2.1 | 50.8 | 18.1 |
| 평년 대비 | −13.1 | −14.6 | −0.6 | −12.5 |

주 1.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6년산 6.6%, 2015년산 5.2%, 평년 5.8%)을 적용하고, 정부와 농협의 비축·수매 통(피) 마늘 물량이 포함됨.
2. 평년 입고량과 재고량은 냉장협회의 월별 마늘 소요량 기준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1월 10일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 2017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2016년 대비 7% 증가함.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 결과(11. 20), 2017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016년산 마늘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한 2만 2천ha 내외 전망임.
  - 2017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한지형 마늘과 양파에서 전환되어 난지형 마늘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임.

- 2017년산 마늘 생육 양호, 포전거래는 미미한 수준임.
  - 농업관측본부 모니터 조사 결과(1. 10), 2017년산 마늘 작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 2017년산 마늘의 경우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파종시기가 늦어져 겨울철 한파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겨울철 기온이 높아 작황이 빠르게 호전된 것으로 조사됨.
  - 2017년산 마늘 포전거래 비중은 마늘 가격 수준과 작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산지유통인들의 관망세가 지속되어 평년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됨.

### 2017년산 마늘 추정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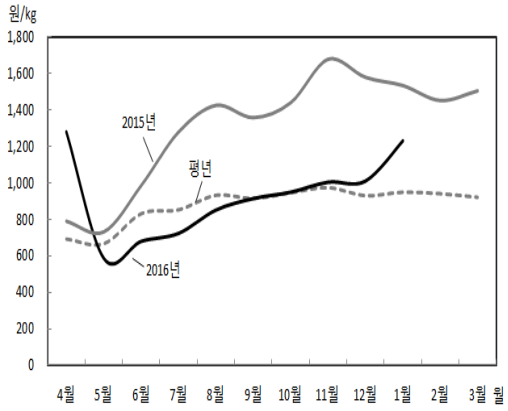
단위: ha, %

| 2017년산 | 2016년산 | 평년 | 증감률 | |
|---|---|---|---|---|
| | | | 전년 대비 | 평년 대비 |
| 22,200 | 20,759 | 24,831 | 6.9 | −1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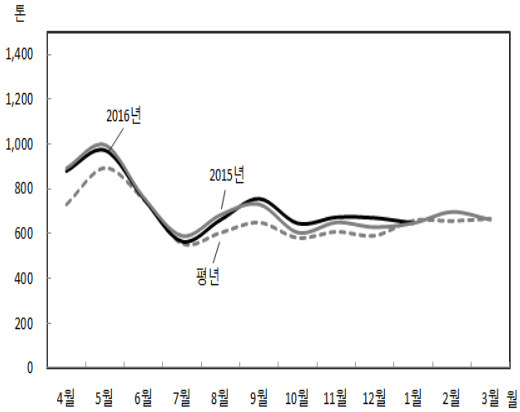
주: 2017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3.3. 양파

### 양파 도매가격 동향




###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1년 4월~2016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37% 낮은 상품 kg당 988원임.
  - 월별가격은 10월 946원에서 11월 1,004원, 12월 1,010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6%, 1% 상승함. 이는 저장양파의 출하조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다만, 12월에는 정부의 국내산 수매 비축물량 판매로 전월 대비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음.
- 2016년산 저장양파 동향
  - 2016년산 양파 입고량은 생산량은 증가로 전년보다 14% 많으나, 평년보다 4% 적은 63만 2천 톤임.
  - 농업관측본부 저장업체 표본 조사 결과(1. 10), 12월 말 기준 2016년산 양파 재고량은 약 20만 7천 톤으로 전년보다는 10% 많으나, 평년보다는 21% 적은 것으로 추정됨.

## 2016년산 양파 추정 입고량

단위: 천 톤, %

| 연산 | | 입고량 | 출고량 | 재고량 |
|---|---|---|---|---|
| 2016 | | 632 | 394 | 207 |
| 2015 | | 556 | 342 | 188 |
| 평년 | | 655 | 359 | 263 |
| 증감률 | 전년 대비 | 13.6 | 15.2 | 10.2 |
| | 평년 대비 | −3.6 | 9.7 | −21.3 |

주: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6년산 13.1%, 2015년산 12.4%, 평년 11.2%)을 적용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1월 10일 저장업체 조사치.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재고량 증가로 전년보다 19% 낮았으나, 전월보다는 22% 높은 1,231원이었음.
  - 2~3월 평균 도매가격은 저장량 증가로 전년(1,479원)보다 낮지만, 1월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됨.

- 2017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 모니터 조사결과(1.10), 2017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016년산보다 10% 감소한 1만 7,960ha로 추정됨. 이는 전년 수확기 가격이 낮았기 때문이며, 대체작목은 주로 마늘인 것으로 조사됨.
  - 품종별로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이 전년보다 각각 21%, 8% 감소함.

### 2017년산 양파 추정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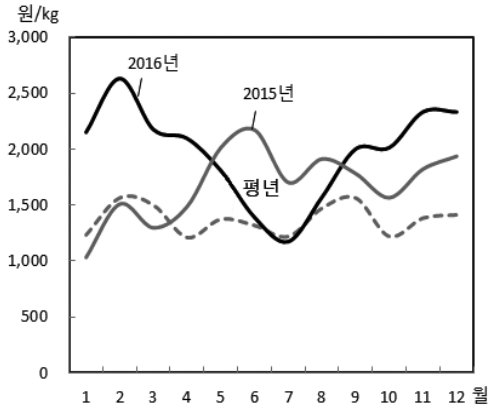
단위: ha, %

| 2017년산 | 2016년산 | 평년 | 증감률 | |
|---|---|---|---|---|
| | | | 전년 대비 | 평년 대비 |
| 17,960 | 19,896 | 20,157 | -9.7 | -1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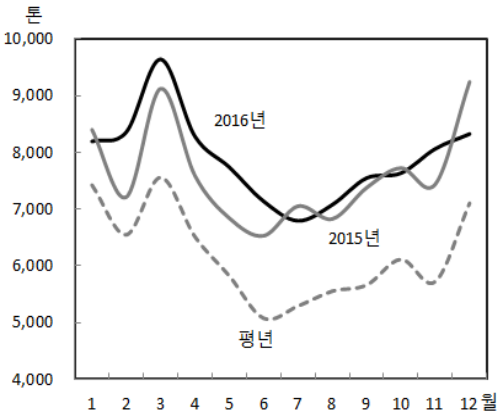
주 1. 2017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2016년산 제주 재배면적(통계청)은 2015년산 대비 144%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음.
자료: 통계청

## 3.4. 대파

###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 대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1년 1월~2015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4/4분기 동향
  - 대파 4/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2,225원(중품 1,885원)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26%, 57% 높았음.
    * (금년) 2,225원/kg, (전년) 1,773원, (평년) 1,338원
    * (10월) 2,012원/kg, (11월) 2,332원, (12월) 2,331원
  - 8월 지속된 폭염 및 가뭄 피해로 가을·겨울대파 작황이 부진하여 10~12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2% 감소함.
  - 12월 가격은 겨울대파 재배면적 감소와 초기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강세가 지속되었음.
  -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3%, 7% 감소함.
    * 전남지역 노지대파 재배면적: (금년) 3,178ha, (전년) 3,277ha, (평년) 3,421ha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4분기는 겨울대파가 주 출하되는 시기로 전남 신안, 진도, 영광군에서 주 출하될 예정임.
  - 영광 겨울대파는 전년 대비 작황이 양호하여 출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12월 출하비중이 높아 1/4분기 출하량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진도는 작황이 부진하여 출하량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안 작황은 대체로 양호하여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 전남 겨울대파는 초기 출하량이 적어 2월 이후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2017년 1/4분기 대파 가격은 설 영향으로 1월까지는 강세가 지속되었으나, 2월부터는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봄대파 정식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 경기·강원 | 충청 | 호남 | 영남 | 전체 |
|---|---|---|---|---|
| 3.2 | 2.2 | 2.6 | 2.7 | 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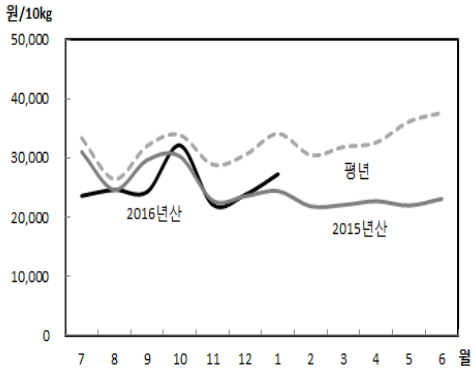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2016년 5~7월 출하 예정인 봄대파 정식의향은 전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지역 시설대파 정식의향은 전년 대비 3% 증가하였고, 충청, 호남, 영남 지역의 노지 및 시설 봄대파 정식의향 또한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봄대파가 출하되는 4월 이후 가격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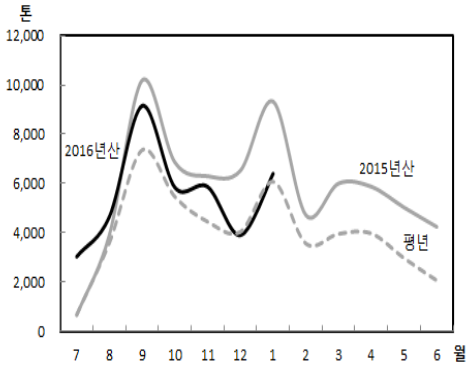
# 4. 과일[13)]

## 4.1. 사과

###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1~15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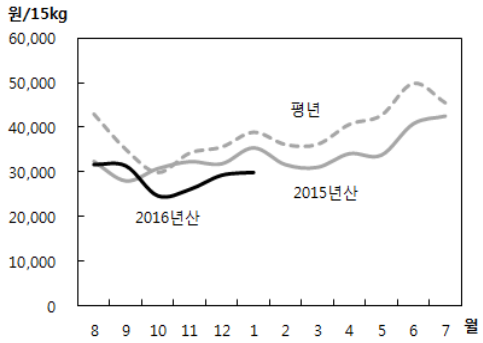
- 2016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후지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보다 4%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7천원이었음. 이는 반입량이 전년보다 21% 적었기 때문임.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후지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보다 10%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7천원이었음. 설 성수기(설 전 2주간)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성수기보다 9% 높은 2만 9천원이었음.
  - 2월 이후 출하량은 저장량 감소로 전년보다 2% 적을 것으로 전망됨.

13)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박미성 부연구위원(mspark@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이미숙(lms1214@krei.re.kr), 박한울(phu87@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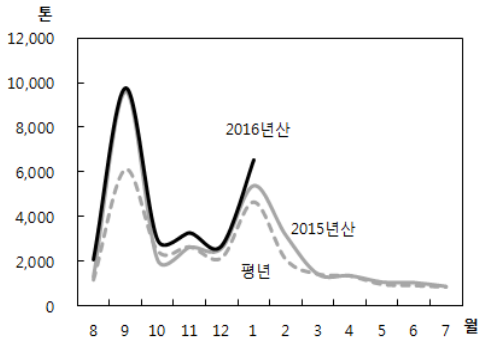
- 2017년 재배면적 전망
  - 2017년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증가한 3만 3,840ha 수준으로 전망됨. 성목면적은 전년보다 1% 증가하고, 유목면적은 신규 식재가 늘어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는 주산지인 경북과 충청지역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2%, 1% 증가하고, 강원지역은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1~15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보다 16% 하락한 상품 15kg 상자에 2만 7천원이었음. 이는 추석 이후 저급품 배 출하가 많아 반입량이 23% 많았기 때문임.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신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6%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3만원이었음. 설 성수기(설 전 2주간) 도매가격은 저장배 품질(크기, 모양 등)이 좋지 않고

소비도 부진하여 전년(3만 6천원)보다 낮은 2만 8천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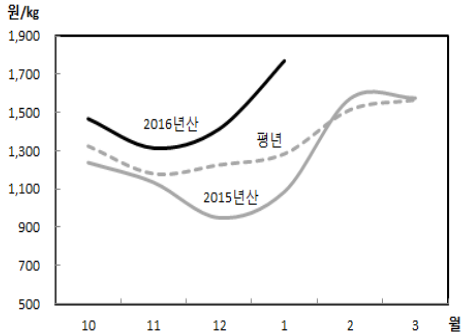
- 2월 이후 출하량은 설 이후 저장량이 적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재배면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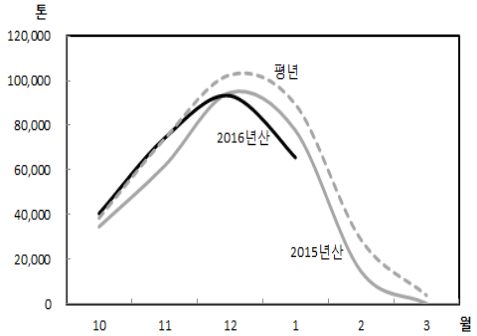
- 2017년 배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한 1만 700ha 수준으로 전망됨. 성목면적과 유목면적은 전년보다 각각 1%,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면적 감소 요인은 도시개발과 작목전환 등으로 파악됨.

##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




**감귤 출하량 동향**




주: 평년은 2011~15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2016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노지온주 평균 도매가격(감귤출하연합회)은 출하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당산비 등 품질이 좋아 kg당 1,398원으로 전년보다 26% 높았음.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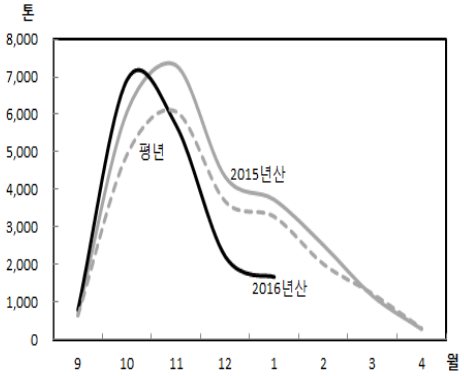
- 1월 노지온주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1,086원)보다 63% 높은 kg당 1,771원이었음.
- 2월 이후 출하량은 저장량 감소로 인해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재배면적 전망
  - 2017년 감귤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한 2만 1천 ha로 전망됨. 품종별로는 노지온주가 전년보다 1% 감소하나 월동온주와 만감류는 각각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4.4. 단감

**단감 도매가격 동향(상품)**

**단감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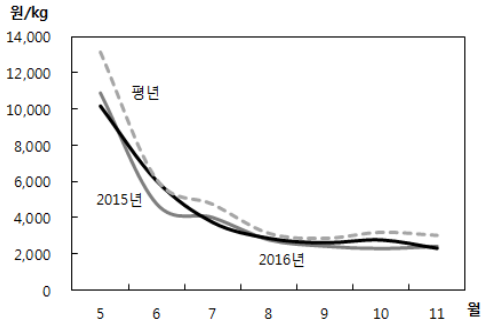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1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단감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생산량 감소로 반입량이 적어 상품 10kg 상자에 2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33% 상승함.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부유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보다 43%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5천원이었음. 설 성수기(설 전 2주간)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성수기보다 21% 높은 2만 6천원이었음.
  - 2월 단감 출하량은 저장량 감소로 전년보다 30% 적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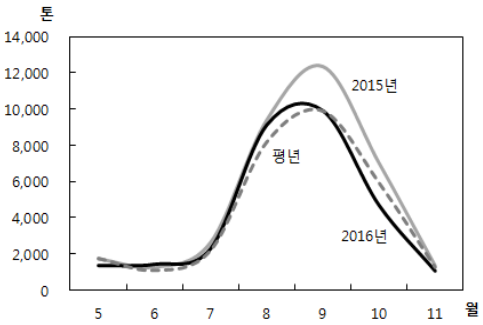
- 2017년 재배면적 전망
  - 2017년 단감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한 9,345ha로 전망되며 성목과 유목면적은 각각 2%,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단감 재배면적은 농가고령화와 도시개발, 수요 감소 등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될 전망임.

## 4.5. 포도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포도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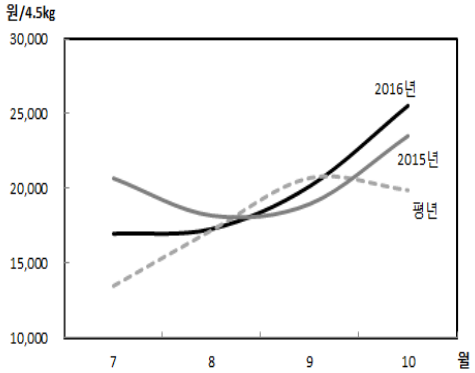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1~1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5월 델라웨어, 6~11월 캠벨얼리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4/4분기 동향
  - 10~11월 캠벨얼리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 감소로 상품 5kg 상자에 전년보다 8% 높은 1만 3천원이었음.
- 2017년 재배면적 전망
  - 2017년 포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2014~2016년 가격 약세와 농가 고령화 등의 이유로 2015년에 이어 FTA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농가가 많기 때문임.
  - 품종별로는 캠벨얼리와 MBA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16%, 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이는 다른 품종에 비해 노목 비율이 높고 가격도 좋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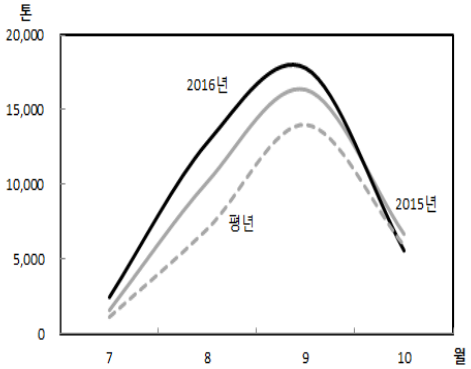
때문임. 반면, 청포도 재배면적은 품종을 전환하는 농가가 늘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4.6. 복숭아

**복숭아 도매가격 동향(상품)**




**복숭아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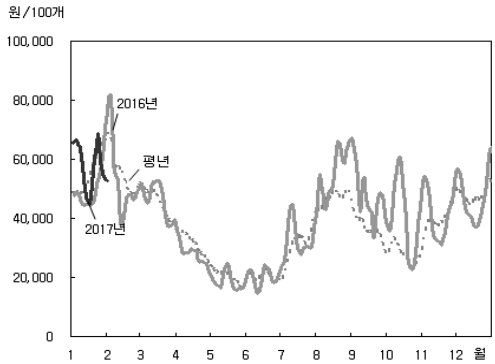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1~1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5월 델라웨어, 6~11월 캠벨얼리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4/4분기 동향
  - 10월 황도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 감소로 상품 4.5kg 상자에 전년보다 6% 높은 2만 4천원이었음.
- 2017년 재배면적 전망
  - 2017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5% 증가한 2만 ha 내외로 전망됨. 유목면적인 신규 식재뿐만 아니라 포도폐업 농가가 일부 복숭아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8% 증가할 전망임. 성목면적은 유목의 성목 전환으로 전년보다 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품종별로는 유모계 복숭아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6% 증가하고, 천도계는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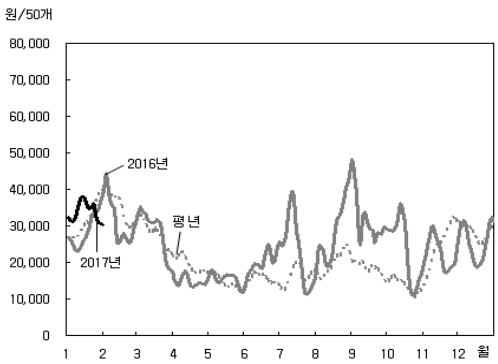
# 5. 과채[14)]

## 5.1. 오 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2~2016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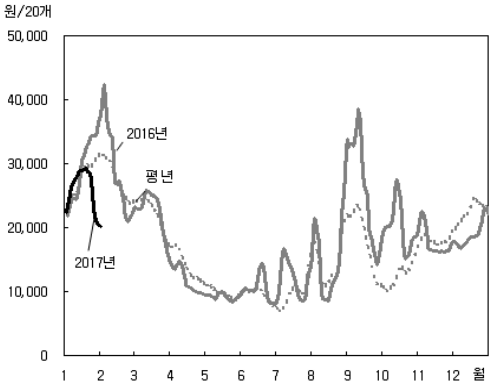
- 2016년 4/4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10월 3만 9,400원, 11월 4만 1,900원, 12월 4만 7,6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4만 3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 낮았음.
  - 백다다기오이 4/4분기 반입량은 재배면적 확대와 작황 호조로 전년 동기보다 14% 많았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상품 50개에 10월 2만 3,700원, 11월 2만 2,400원, 12월은 2만 5,8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충청과 호남의 재배면적 축소로 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대체 품종인 백다다기오이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1% 낮은 2만 4천원 이었음.

14)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박미성 부연구위원(mspark@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최기림(somang89@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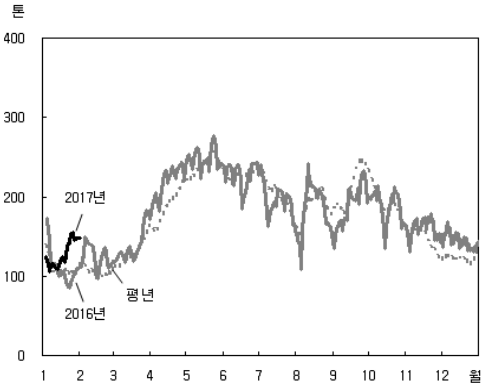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이른 명절맞이 대형유통업체 행사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19% 높은 상품 100개에 5만 8,800원이었음.
  - 2~3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반촉성 작형이 출하되는 충청에서 재배면적이 늘어 기상이변이 없는 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유통업체 행사 확대로 백다다기오이와 동반 상승하여 전년 동기보다 23% 높은 상품 50개에 3만 4,700원이었음.
  - 2~3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충청의 백다다기오이 전환 농가 확대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2~2016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4/4분기 동향
  - 애호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10월 2만 100원, 11월 1만 7,800원, 12월에는 1만 8,9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3% 낮은 1만 8,900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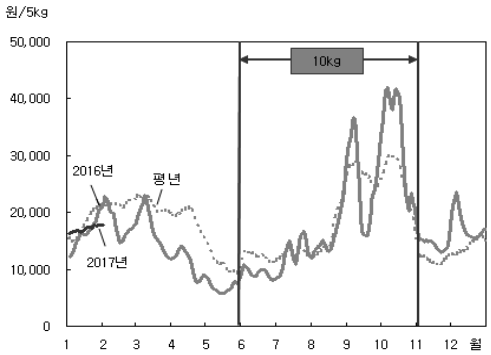
- 4/4분기 반입량은 경남 진주 등 겨울 재배지 면적 확대와 작황 호조로 전년 동기보다 3% 많았음.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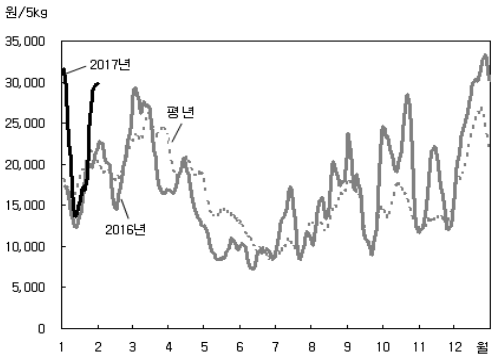
- 1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이른 명절로 인한 유통업체 행사에도 불구하고 영남의 면적 확대와 기상 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보다 9% 낮은 상품 20개에 2만 6,800원이었음.
- 애호박 2~3월 출하량은 출하가 이어지는 경남 진주에서 재배규모가 확대되어 기상이변이 없는 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5.3.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2~2016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4/4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10월 2만 7,500원, 11월 1만 4,400원, 12월에는 1만 7,8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1만 9,9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3% 높았음.
- 일반토마토 4/4분기 반입량은 작황 부진과 생육 부진으로 인한 조기 종료로

전년 동기보다 23%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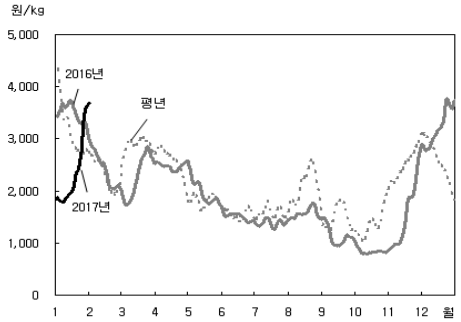
-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5kg 상자에 10월 2만 1,700원, 11월 1만 6천원, 12월에는 2만 7,6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2만 1,7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7% 높았음.
- 방울토마토 4/4분기 전체 반입량은 주산지에서 생육부진으로 전년 동기보다 29% 적었음.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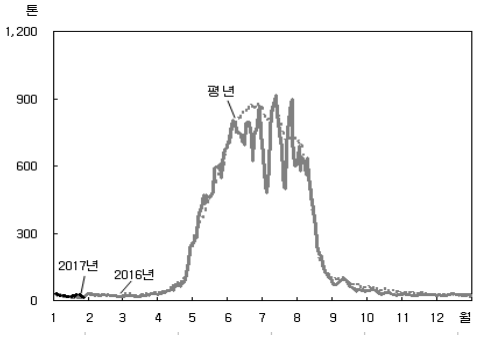
- 1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4% 높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7,100원이었음.
- 2~3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기상 호조로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 1월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 전년 동기보다 27% 높은 상품 5kg 상자에 2만 1,100원이었음.
- 2~3월 전체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 5.4.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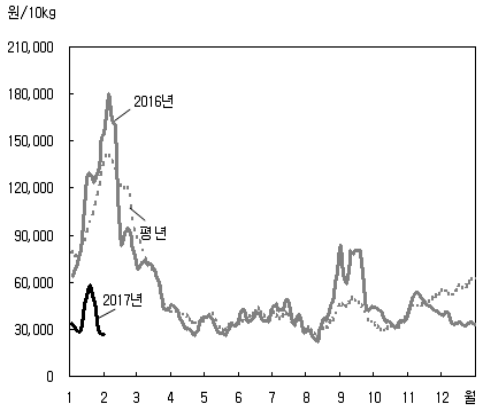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2~2016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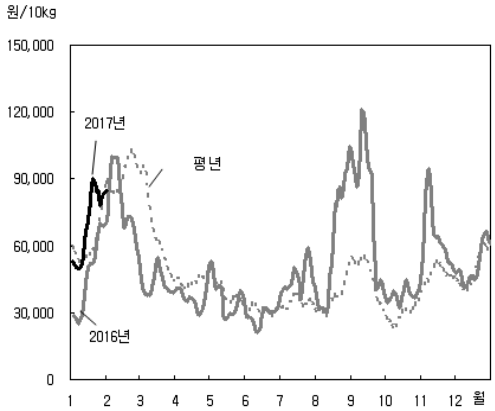
- 2016년 4/4분기 동향
  - 수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10월 1,370원, 11월 2,480원, 12월 2,58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2% 높은 2,130원이었음.
  - 수박 4/4분기 반입량은 주산지인 충청에서 재배면적이 줄고, 여름철 고온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 동기보다 20% 감소함.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수박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이른 설 명절 영향으로 정식을 앞당긴 농가가 많아 작년 동기보다 32% 낮은 상품 1kg에 2,160원이었음.
  - 2~3월 수박 출하량은 출하비중이 큰 영남의 재배면적 감소로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 5.5. 풋고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




**일반풋고추(녹광) 도매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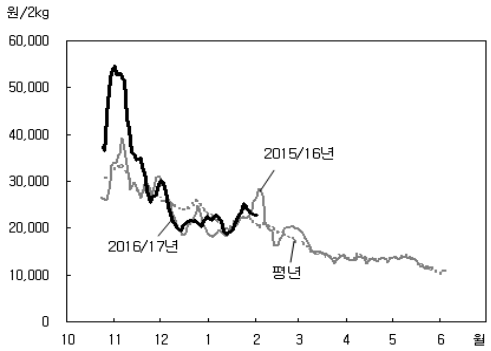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2~2016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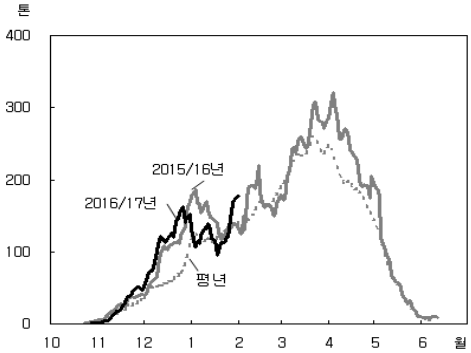
- 2016년 4/4분기 동향
  -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0월이 3만 6,600원, 11월 4만 6,800원, 12월에는 3만 5,2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12% 낮은 3만 9,500원이었음.
  - 4/4분기 반입량은 여름철 고온으로 주산지의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보다 3% 적었음. 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4/4분기 평균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한 이유는 12월 반입량이 영남의 재배면적 확대로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어 12월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36% 하락하였기 때문임.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0월에는 3만 7,700원, 11월 6만 4천원, 12월은 5만 1,200원이었음.
  - 일반풋고추(녹광) 10~12월 반입량은 주산지의 면적감소로 전년보다 33% 적었음. 이에 따라 4/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69% 높은 5만 천원이었음.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청양계풋고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보다 64%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39,500원이었음. 1월 일반풋고추(녹광) 평균도매가격은 전년보다 45%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68,300원이었음.
  - 청양계풋고추 1월 반입량은 영남의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많았으며, 일반풋고추(녹광)는 출하기 가격 약세로 면적이 줄어 전년 대비 적었음.
  - 2~3월 청양계풋고추 출하량은 재배면적이 확대된 영남에서 출하가 이어져 전년보다 증가하겠으나, 일반풋고추(녹광)는 면적이 줄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5.6. 딸기

**딸기 도매가격 동향(상품)**




**딸기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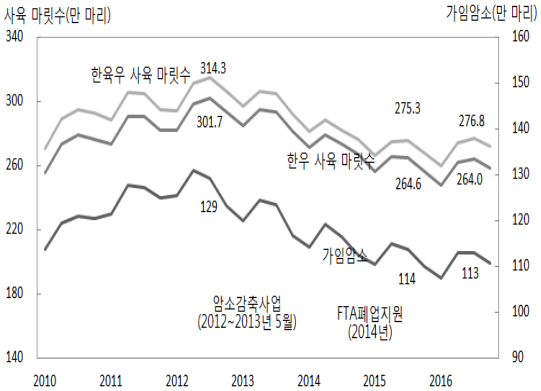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2~2016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4/4분기 동향
  - 딸기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10월 4만 6,400원, 11월 3만 7,100원, 12월에는 2만 2,6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3만 5,3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 높았음.
  - 딸기 4/4분기 반입량은 재배면적이 확대되었고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동기보다 14% 많았음.
  - 반입량이 높았음에도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은 여름철 고온으로 정식을 늦춘 농가가 많아 출하 초기 가격이 높은데다, 감귤 작황 부진으로 딸기로 대체 소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임.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딸기 도매가격은 출하량은 증가하였으나 대형유통업체의 판촉행사 확대로 전년 동기보다 6% 높은 상품 2kg 상자에 2만 1,900원이었음.
  - 2~3월 딸기 출하량은 재배면적 확대와 기상 호조로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 6. 축산[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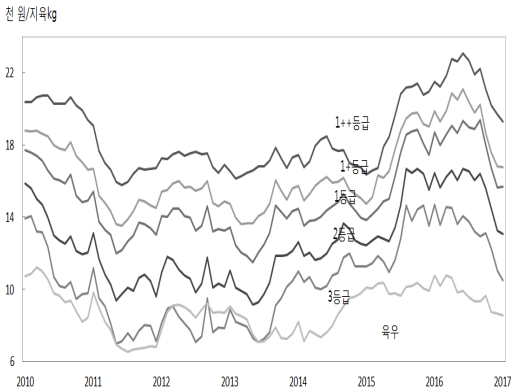
## 6.1. 한육우

###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6년 4분기 동향
  - 2세 미만 마릿수 감소로 12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9월(277만 마리)보다 1.8% 감소한 272만 마리였음(전년 동월 268만 마리보다 1.5% 증가).
    * 12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272만 마리, 한우 259만 마리, 육우 13만 2천 마리
    * 가임암소 사육 마릿수 111만 마리(전년 동월 110만 마리)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요 감소로 4/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3/4분기 19,068원/지육kg보다 12.5% 하락한 16,671원임(전년 동기 18,016원보다 8.1% 하락).

15)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지인배 연구위원(jiinbae@krei.re.kr),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김형진(junjang00@krei.re.kr), 한봉희(hanbh@krei.re.kr), 정세미(wjdtpal55@krei.re.kr), 지선우(bsn02@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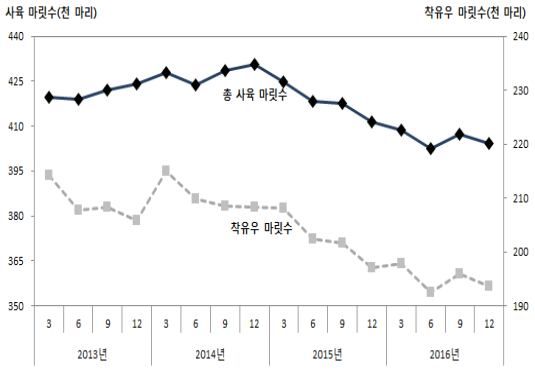
- 2017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 소비 위축으로 1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4/4분기보다 6.9% 하락한 15,687원이었음(전년 동월 18,714원보다 16.2% 하락).
  - 3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12월보다 4.4% 감소한 259만 8천 마리로 전망됨(전년 동월 259만 6천 마리보다 0.1% 증가).
  - 수요 위축이 예상되어 2~3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4/4분기 대비 약세인 15,000~17,000원으로 전망됨(전년 동기 18,264원보다 12% 내외 하락).

###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 | 206년 12월(A) | 2017년 3월(B) | B/A |
|---|---|---|---|
| 사육 마릿수 | 272만 마리 | 260만 마리 | -4.4% |
| 1등급 도매가격<br>(지육kg) | 10~12월<br>16,784원 | 2~3월<br>15,000~17,000원 | -8.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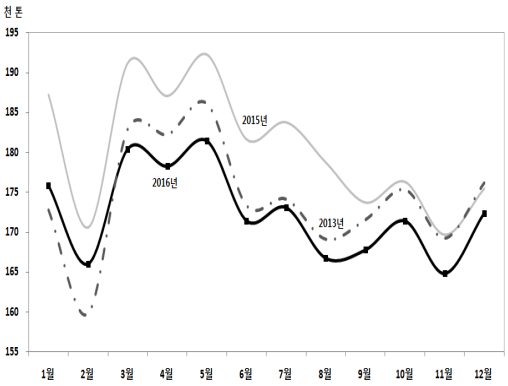
## 6.2. 젖소

###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원유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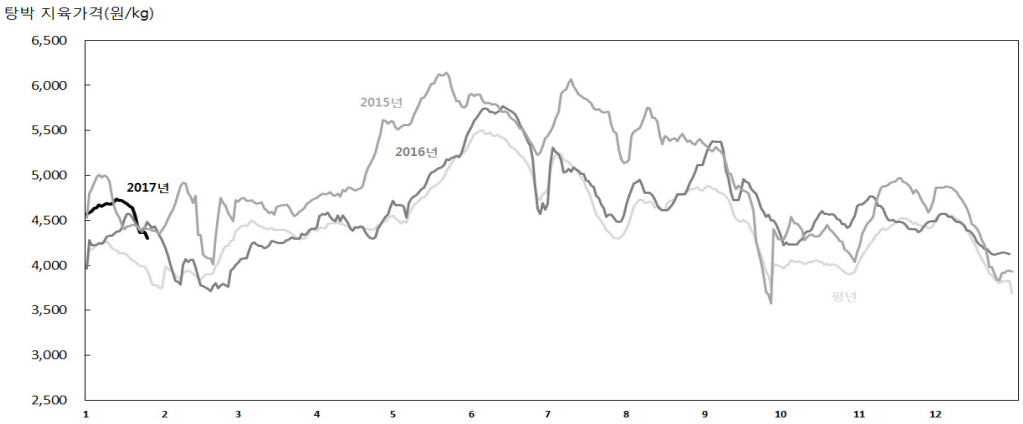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2016년 4/4분기 동향
  - 12월 젖소 사육 마릿수는 원유 감산 대책에 따라 전년 동기 보다 1.7% 감소(전분기 대비 0.7% 감소)한 40만 4천 마리였음. 2세 미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2세 이상 사육 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함.
  - 착유우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1.8% 감소(전분기 대비 1.2% 감소)한 19만 4천 마리임. 착유우 마릿수 감소로 4/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50만 8천 톤임.
  - 2016년(12월 기준) 분유재고량은 전년 동기 보다 44.3% 감소한 1만 1,139톤임. 분유재고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원유 감산 대책을 지속할 경우 2017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임.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착유우 도태 지연 등의 영향으로 1/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51만 8천~52만 3천 톤으로 전망됨.

## 6.3. 돼지

### 돼지 도매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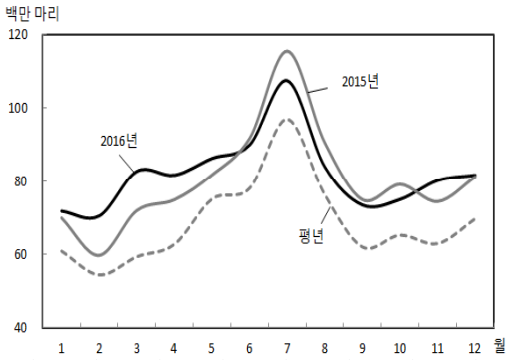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6년 4/4분기 동향
  - 2016년 12월 모돈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1.6% 증가한 97만 4천 마리였음. 모돈 증가에 따른 자돈 생산 증가로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1.8% 증가한 1,037만 마리임(통계청).
  - 사육 마릿수 증가로 4/4분기 도축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3.0% 증가한 445만 마리였음(축산물품질평가원).
  - 도축 마릿수는 증가하였으나, 돼지고기 수요 증가(저탄수화물고지방 식단 방송 이후 돼지고기 수요 증가 추정)로 4/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4,460원) 수준인 탕박 기준 지육 kg당 4,430원이었음.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자돈 생산 증가로 1/4분기 도축 마릿수는 전년보다 0.8% 증가한 428만 마리로 전망됨.
  - 도축 마릿수는 증가하나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2017년 1/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1월 4,589원, 2월 4,200~4,500원, 3월 4,300~4,600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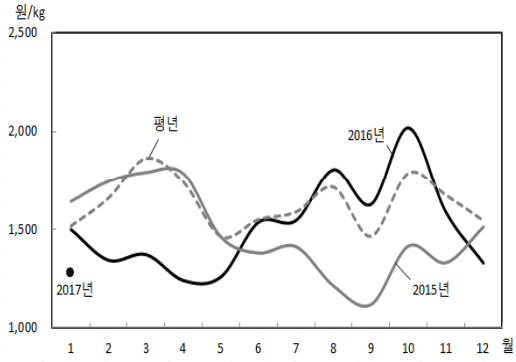
##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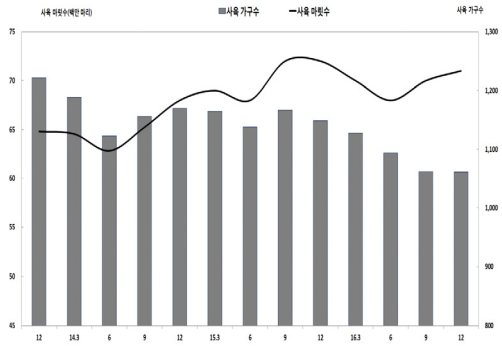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2~16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 2016년 4/4분기 동향
  - 10월 도계 마릿수는 폭염 피해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10월 육계 산지가격 상승으로 11~12월 도계 마릿수는 증가함. 이에 따라 2016년 4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0.9% 증가한 2억 3,722만 마리임(2016년 총 도계 마릿수 전년보다 2.6% 증가한 9억 9,252만 마리).
  - 2004년 태국 내 HPAI 발생으로 태국산 냉동 닭고기의 국내 수입(검사기준)이 금지됨. 금지 12년만인 2016년 11월 수입이 재개되었지만, 2016년 태국산 닭고기 수입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HPAI로 인한 닭고기 수요 감소로 12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함. 그러나 10~11월 육계 산지 가격은 추석 이후 대닭 부족 현상과 종계 생산성 하락, 계열업체 구매 확대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2.6%, 19.4% 상승함. 이에 따라 2016년 4분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간 대비 15.9% 상승한 1,645원/kg임.(2016년 평균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2.0% 상승한 1,513원)
- 2017년 1/4분기 전망
  - HPAI 발생에 따른 병아리 생산 감소와 입식 제한 등으로 2017년 1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분기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1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9.7% 감소한 2억 4백만 마리로 예상됨.
  - HPAI 발생으로 종계가 매몰 처분됨에 따라 2017년 상반기 육용 실용계 병아리 생산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입식 제한으로 병아리 입식도 원활하지 못해 닭고기 생산량도 감소할 전망임.
  - 2017년 1월 중순까지 태국산 냉동 닭고기 소량 수입됨. 그러나 브라질과 미국산 닭고기에 비해 수입단가가 높아 1분기 태국산 닭고기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1월 육계 산지가격은 닭고기 공급 증가와 HPAI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9% 하락한 1,276원/kg임. 2~3월 육계 산지가격은 닭고기 공급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1,900~2,000원/kg, 3월 육계 산지가격은 1,800~1,900원/kg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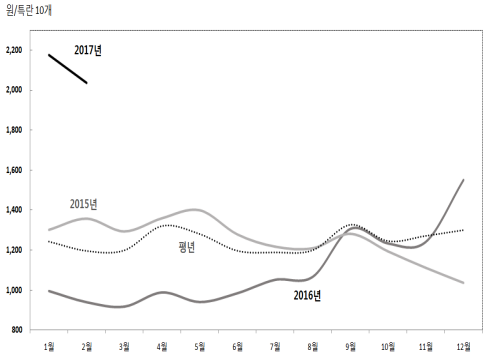
# 6.5. 산란계

##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 계란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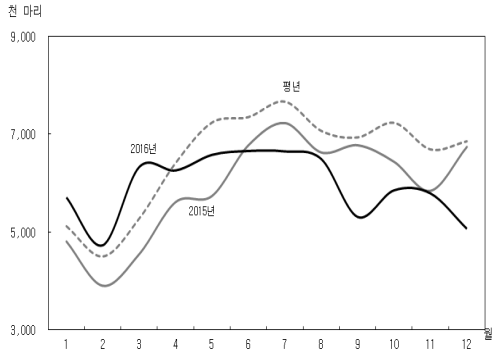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2~15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 2016년 4/4분기 동향
  - 12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1.2% 감소한 71,043만 마리였음.
  -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8~11월)은 1,779만 마리로 전년 동기간보다 15.9% 증가하였으나, HPAI 발생으로 12월 입식마릿수는 201만 마리로 전년 보다 54.3% 감소함.
  - 산란 성계 도태는 전년보다 26.7% 감소한 691만 마리였음.
  - 10~11월 월별 산지가격은 계란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평균 7.5% 상승한 1,237원/특란10개이었으며, HPAI 피해가 집중된 12월 계란 가격은 공급물량 감소로 전년보다 49.7% 상승한 1,551원이었음.
- 2017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HPAI 피해로 공급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수준에서 HPAI가 종식되었을 때, 2017년 1분기 6개월령 이상 산란용 사육 마릿수는 2016년 동기간보다 평균 2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1~3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간보다 121.1%(평년 대비 73.3%) 상승한 2,000~2,200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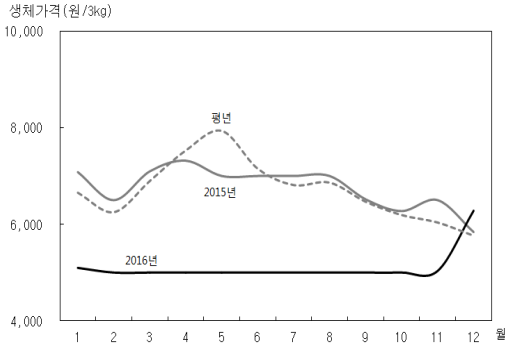
# 6.6. 오리

## 오리 도압 마릿수




주: 평년은 2011~15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 오리 생체 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1~15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한국오리협회

- 2016년 4/4분기 동향
  - 12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7.0% 감소한 810만 9천 마리임. 종오리 감축 대책과 11월 HPAI의 발생으로 종오리와 육용오리 전년보다 각각 25.8%, 16.0% 감소함. 2016년 12월 기준 종오리 마릿수는 71만 2천 마리이며, 육용오리 마릿수는 739만 7천 마리임.
  - 종오리 감축으로 육용오리 입식이 감소하여 4/4분기 도압 마릿수는 전년에 비해 12.1% 감소한 1,672만 마리임.
  -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소비량 대비 공급량이 많아 4/4분기 오리 생체가격(3kg)은 전년 동기보다 12.4% 하락(평년 대비 9.3% 하락)한 5,438원임.
- 2017년 1/4분기 전망
  - HPAI의 발생으로 1~2월 도압 마릿수는 전년보다 40.9% 감소한 617만 6천 마리로 전망됨.
  - 오리고기 공급량 감소로 1~2월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7,400~7,900원/3kg으로 전망됨.

# 특별주제

❶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등 소비행태 변화 조사

❷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등 소비행태 변화 조사*

이용선**, 박한울***

## 1. 조사 개요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업무와 관련한 식사 접대 실태 등 소비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기간은 2016년 10월 21~23일까지이며, 조사전문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위탁하여 온라인 웹조사를 실시함.
  - 조사 내용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업무 관련 식사 접대 횟수, 1인 1회당 평균 식사 접대 금액, 접대 횟수 감소에 따른 대체 소비 형태 등임.
  - 신뢰도 95% 수준에 표준 오차율은 ±5.39%임.
- 조사대상 응답자는 직장 형태별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이 59.1%로 가장 많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32.4%, 공직자 등이 8.5% 순으로 많음. 직급별 응답자는 과장/차장급이 62.1%로 가장 많고 부장급 25.2%, 이사/국장급 이상 12.7% 순임.[1)]
  - 공직자 등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언론 및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포함.
  - 월평균 소득은 400~600만원 미만이 40.0%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40대가 51.5%임.

---

* 본고는 「현안분석-제 22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등 소비행태 변화 조사」를 재구성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yslee@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phu87@krei.re.kr)

1) 업무관련 식사 접대가 주로 과장급 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조사대상자의 직급을 과장급 이상으로 한정함.

###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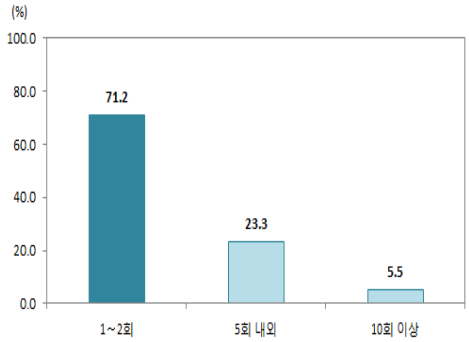
| |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전체 | | 330 | 100.0 |
| 연령 | 20대 | 2 | 0.6 |
| | 30대 | 83 | 25.2 |
| | **40대** | **170** | **51.5** |
| | 50대 이상 | 75 | 22.7 |
| 월소득 | 200만 원 미만 | 5 | 1.5 |
| | 200만 원~400만 원 미만 | 112 | 33.9 |
| | **400만 원~600만 원 미만** | **132** | **40.0** |
| | 600만 원~800만 원 미만 | 58 | 17.6 |
| | 800만 원 이상 | 23 | 6.9 |
| 직장형태 | 공직자 등 | 28 | 8.5 |
|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107 | 32.4 |
| | **중소기업 및 자영업** | **195** | **59.1** |
| 직급 | 과장/차장급 | 205 | 62.1 |
| | 부장급 | 83 | 25.2 |
| | **이사/국장급 이상** | **42** | **12.7** |

## 2.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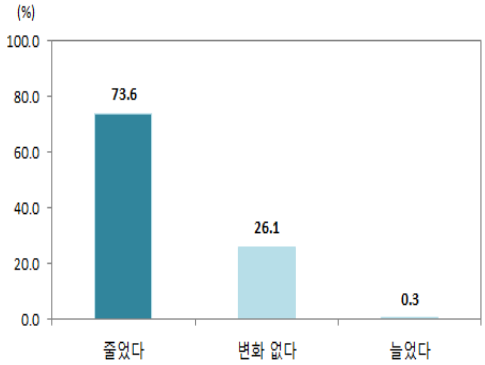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무 관련 식사 접대 빈도가 감소한 직장인은 73.6%로 높게 나타남.
  -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업무 관련 식사 접대 횟수에 대한 응답자 비중은 월평균 1~2회가 71.2%, 5회 내외가 23.3% 순으로 많았음.
  - 법 시행 후 식사 접대 횟수가 '줄었다'는 응답 비중이 73.6%로 높게 나타남. 직장인의 식사 접대 대상이 공직자 등에 한정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감소응답 비중이 높음.
  -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이후 식사 접대 횟수에 '변화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6.1%로 나타남.

## 시행 이전·이후 월평균 식사 접대 횟수

〈시행 이전 월평균 식사 접대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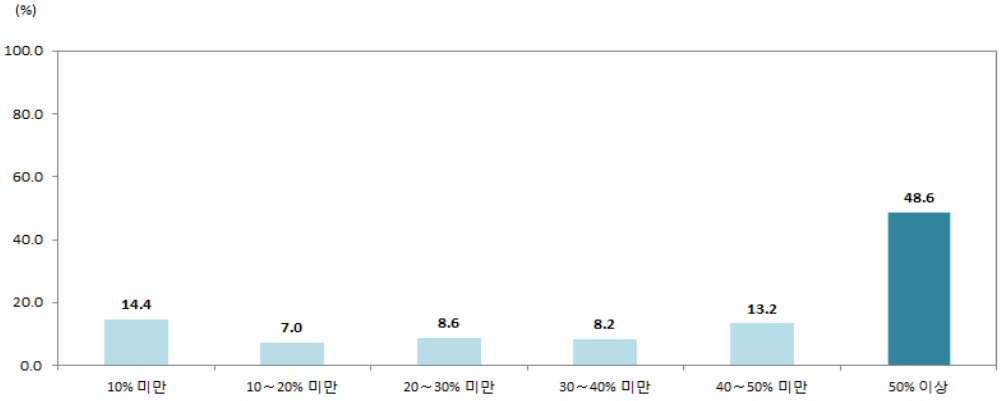



〈시행 이후 식사 접대 횟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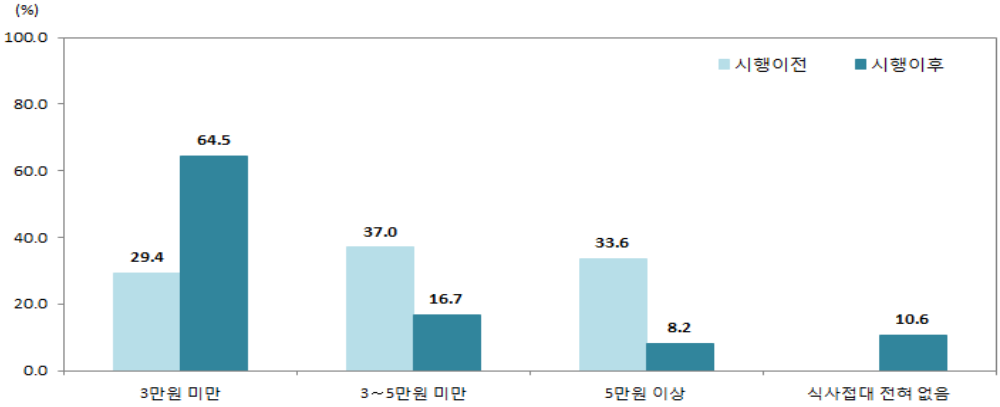

- 법 시행 후 식사 접대 횟수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자 비중은 48.6%로 나타남. 한편, 법 시행 이후 식사 접대 횟수가 '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0.3%에 불과함.
  - 직장인의 61.8%는 접대 횟수가 4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함. 동법 시행 이후 식사 접대 횟수가 줄어든 정도를 조사한 결과 50% 이상이 48.6%로 가장 많고 다음은 40~50%미만이 13.2%, 10% 미만이 14.4%, 20~30% 미만이 8.6%, 30~40%미만이 8.2%, 10~20% 미만이 7.0% 순으로 조사됨.
  - 반면, 시행 이후 식사 접대 횟수가 늘어난 정도를 조사한 결과 10~20% 미만이 가장 많았음.

## 시행 이후 식사 접대 횟수 줄어든 정도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인당 1회 식사 접대 비용은 '3만원 미만'이 64.5%로 나타남.
  - 식사 접대 시 1인당 평균 금액은 법 시행 이전에 '3~5만원 미만'이 37.0%, '5만원 이상'이 33.6%로 '3만원 이상'이 전체의 70.6%를 차지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24.9%로 크게 낮아짐.
  - 3만원 미만의 식사 접대 비중은 법 시행 전 29.4%에서 시행 후 64.5%로 증가하고, '타 기관이나 직장 내 동료 간에 식사 접대가 전혀 없었다'는 응답 비중도 10.6%로 나타남.

## 식사 접대 시 1인당 1회 평균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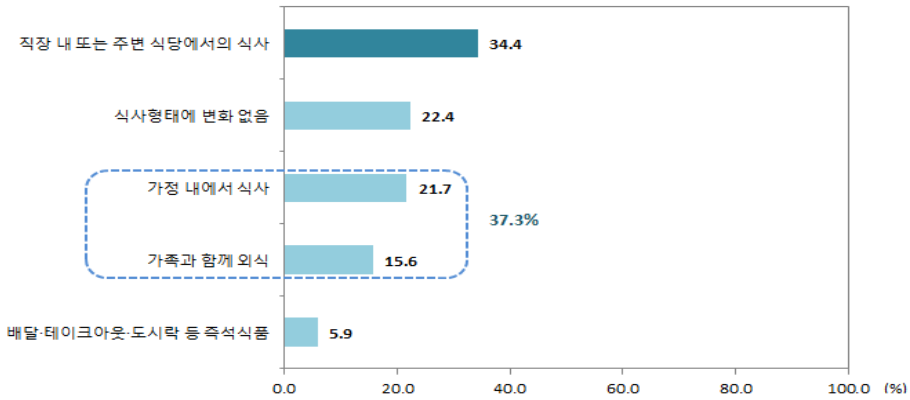



-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접대 빈도가 감소하면서 가족과의 식사 기회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접대 횟수 감소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를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 식사하는 비중이 37.3%로 나타남.
  - 접대 횟수 감소에 따라 '직장이나 직장 주변에서 식사'(34.4%)하거나 '가정 내 식사'(21.7%), '가족과 외식'(15.6%) 등 '가족과의 식사'(37.3%)가 증가함.
  - '배달·테이크아웃·도시락 등의 즉석식품으로 식사'하는 비중은 5.9%로 나타남.
- 법 시행 이후에도 '식사행태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22.4%이며,

이들은 주로 '직장 내 또는 주변 식당에서의 식사'(76.1%)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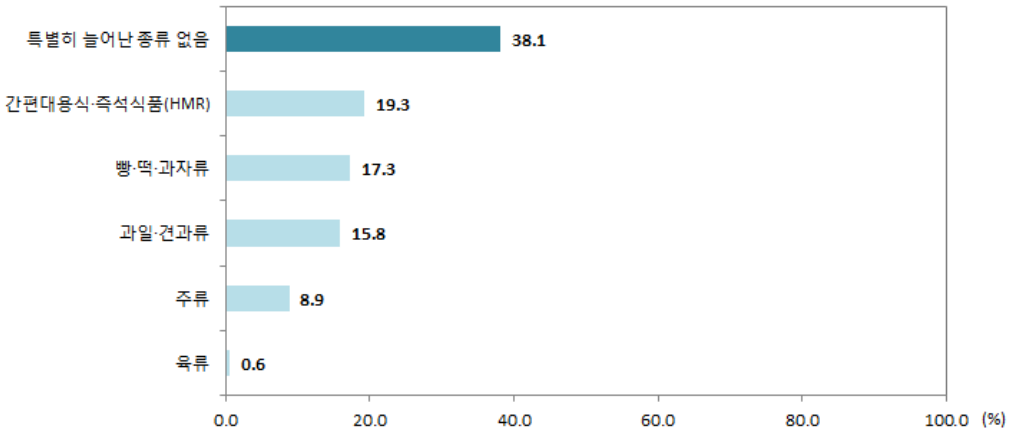
– 시행 이전에도 '가정에서 식사'하는 비중은 23.9%이었음.

## 접대 횟수 감소에 따른 대체 소비 유형




- 식사나 간식을 위해 간편대용식·즉석식품(HMR) 등 간편한 식품 지출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사 또는 간식으로 지출이 늘어난 식품 종류는 간편대용식·즉석식품(HMR)이 19.3%로 가장 높았고 빵·떡·과자류가 17.3%, 과일·견과류가 15.8%로 나타남.
  - 주류 품목의 지출이 늘었다는 응답 비중도 8.9%로 나타나 가정에서의 음주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법 시행 이후에도 식사 또는 간식 대용으로 특별히 지출이 늘어난 식품이 없다는 응답 비중은 38.1%로 나타남.
  - 지출의 변화가 없는 경우 식사나 간식을 위해 주로 구입하는 식품으로는 빵·떡·과자류가 44.8%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간편대용식·즉석식품(HMR)이 29.9%, 과일·견과류가 18.8%, 주류는 5.2%, 기타가 1.2%로 조사됨.

### 시행 이후 식사/간식 지출이 늘어난 식품




## 3. 시사점

- 직장인 식사 접대 수요의 위축은 일부 외식업종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접대 횟수가 40% 이상 감소하고 1인당 접대 금액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장인의 식사 접대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외식업에서는 객단가가 높은 육류 구이점, 한정식점, 해산물전문점, 일식점 등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
  - 식사 접대 수요는 위축되지만 일부 가족단위 외식이나 간편식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2)]
-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외식업계와 농수산업계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외식업계가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춘 실속형 메뉴의 개발·제공, 가족 단위나 직장인 대상의 차별화된 메뉴나 효율화된 서비스 제공,

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접대가 감소함으로써 외식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에, 기업이나 기관에서의 식사 접대 빈도나 금액의 감소는 부정청탁행위를 방지하려는 법 취지에 부합하고 접대비용의 절감을 통한 경영 개선과 시간 절약을 통한 가정 생활의 확대라는 긍정적 영향도 시사함.

업종 전환 등이 요구됨.

- 외식업에 대한 위협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농수산업에 대한 위협이기도 함. 특히 축산물(한우)과 수산물 수요 감소에 대한 농수산업계의 대응 노력도 요구됨.
- 법 시행 이후 식사 접대가 감소하는 대신 간편대용식·즉석식품, 빵·떡·과자류 등 간편한 식품에 대한 수요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식품업계는 이러한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회로 삼아 공급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외식업에 대한 위협은 농수산업 등 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 영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부의 세심한 대응이 요구됨. 신메뉴·서비스 개발 지원, 단기적 금융 애로 문제의 해결, 업종 전환 지원 등을 위한 대책 강구가 긴요함.[3)]

●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위해서는 현지인들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최근 산업의 발전은 수요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출대상국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시장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함.

● 우리나라 농식품의 주요 판매처는 백화점이나 한인마트임. 현지 시장 유통채널의 다양화도 필요함. 현지인 기호에 맞게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요리법 및 식품 개발도 필요함.

● 하반기는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각 국의 보호무역 심화,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시장에서의 우리나라 농산물 소비위축 등 수출 불안 요소들이 다수 존재함.

● 수출대상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정부, 관련기관, 수출업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3)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이나 범위 등에 대한 불명확성이 경제주체들의 식사 접대 행위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측면도 있으므로 법 적용 기준·범위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함.

#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

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 1. 농식품분야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 1.1. 소비자물가지수 개요

-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 소비자가구가 구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임. 통계청에서는 매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동향과 물가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음.
- 통계청은 최근 소비자의 기호, 구매패턴 등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진행하였으며, 조사대상 품목 및 가중치 등을 전면 재조정함.
  - 기준연도 변경: 2010년(2010=100) → 2015년(2015=100)
  - 조사지역 조정: 37개 시 → 38개 시(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용인시 추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통합
  - 조사대상 품목: 481개(2010년) → 460개(2015년), 조사상품(규격) 954개 → 999개
  - 가중치 기준연도: 2012년 → 2015년(2~3년 주기)

    ※ 2013년부터 가중치 개편주기를 5년에서 2~3년 주기로 단축, 연도 끝이 0, 2, 5, 7자 연도 기준으로 가중치를 개편

---

* 본고는 「농정포커스-제 137호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을 재구성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mspark@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sunny@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kimlai@krei.re.kr)

- 이번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농식품분야 조사대상 품목은 곡류, 과일에서 각각 1개, 2개 품목이 추가되고, 채소류, 가공식품에서 각각 1개, 3개 품목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개 품목이 감소함.
  ※ 조사대상 품목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비중이 소비지출 총액의 10,000분의 1 이상(2015년 231원)되는 항목으로 지속적인 가격조사가 가능한 품목 선정

**농식품분야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 개편**

단위: 개

| 구분 | '10 | '15 | 증감 | 비고 |
|---|---|---|---|---|
| 전 체 | 481 | 460 | △21 | |
| 농식품 | 130 | 129 | △1 | |
| 농축산물 | 57 | 59 | 2 | |
| ○ 농산물 | 51 | 53 | 2 | |
| (곡물) | 6 | 7 | 1 | 현미 추가 |
| (채소) | 28 | 27 | △1 | 상추(상추+양상추), 피망 제외, 파프리카 추가 |
| (과일) | 13 | 15 | 2 | 블루베리, 아몬드 추가 |
| (기타) | 4 | 4 | – | |
| ○ 축산물 | 6 | 6 | – | |
| 가공식품 | 73 | 70 | △3 | 파스타면, 식초 추가, 케첩, 커피크림 제외, 빵(빵+식빵), 차(차+음료), 햄 및 베이컨(햄+육류통조림) |

## 2.2. 농식품분야 소비자물가 가중치 변화

-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기준액은 2015년 가계동향조사에서 1인 이상 전국가구(농어가 제외)의 소비지출액을 기초로 중고차구입비 일부를 제외하고 전세금 및 보증금 평가액을 추가한 금액(2,309,356원)임.
  –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2015년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이용하여 각 품목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산출한 것임.
- 개편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농식품 전체의 가중치를 살펴본 결과, 2012년 138.1(전체 1,000)에서 2015년 136.1로 2.0 감소함. 농축산물과 농산물 가중치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축산물 가중치는 증가 추세임.

- 농축산물의 가중치는 66.3('12)에서 66.0('15)으로 0.3 감소함.
- 농산물은 곡물, 채소 등의 가중치 감소로 44.1('12)에서 41.9('15)로 2.2 감소함.
- 반면, 축산물의 가중치는 식생활의 서구화, 여가활동의 증가 등으로 22.2('12)에서 24.1('15)로 1.9 증가함.

## 농식품분야 부류별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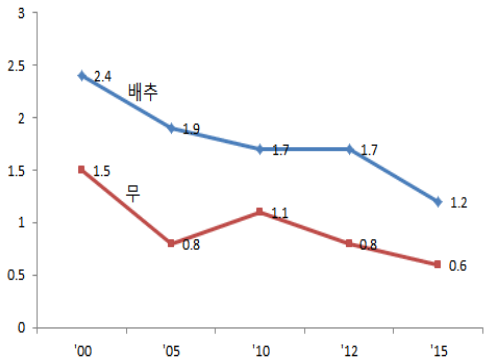
| 구분 | '00 | '05 | '10 | '12(A) | '15(B) | 증감(A-B) |
|---|---|---|---|---|---|---|
| 전 체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
| 농식품 | 154.2 | 136.8 | 134.6 | 138.1 | 136.1 | △2.0 |
| 농축산물 | 87.0 | 75.0 | 65.6 | 66.3 | 66.0 | △0.3 |
| ○ 농산물 | 65.9 | 54.5 | 43.5 | 44.1 | 41.9 | △2.2 |
| (곡물) | 26.1 | 16.5 | 8.2 | 8.6 | 8.2 | △0.4 |
| (채소) | 17.8 | 16.1 | 16.5 | 16.0 | 15.1 | △0.9 |
| (과일) | 16.6 | 16.7 | 15.8 | 15.9 | 15.9 | - |
| (기타) | 5.4 | 5.2 | 3.0 | 3.6 | 2.7 | △0.9 |
| ○ 축산물 | 21.1 | 20.5 | 22.1 | 22.2 | 24.1 | ▽1.9 |
| 가공식품 | 67.2 | 61.8 | 69.0 | 71.8 | 70.1 | △1.7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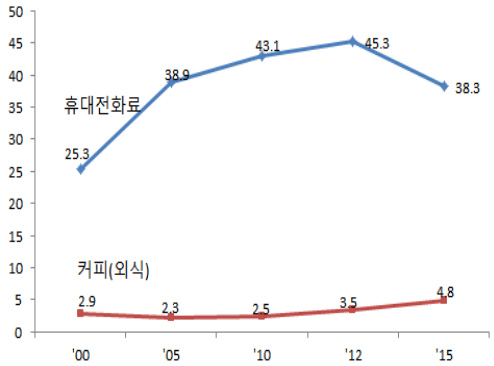
- 식탁물가와 관련이 높은 배추, 무 등 민감 품목의 가중치는 2012년 기준보다 감소하여 가계소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식용 커피 가중치는 증가함.
  - 배추와 무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배추 가중치 변화: 8.7('85)→ 5.7('90)→ 3.7('95)→ 2.4('00)→ 1.9('05)→ 1.7('10, '12)→ 1.2('15)
  - 한편, 외식용 커피 가중치는 4.8, 휴대전화료 가중치는 38.3으로 배추, 무 등 민감 채소류보다 높음.

## 민감 채소류와 비농축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변화 비교

〈민감 채소류〉




〈비농축산물〉




- 농축산물의 단위 품목당 평균 가중치는 소비자물가 주요 품목군에 비해 낮은 편임. 농축산물의 평균 품목 가중치가 타 품목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농축산물 단일 품목이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음을 의미함.
  - 농축산물의 단위 품목당 평균 가중치는 1.2로 통신(10.9),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10.6), 교육(4.9), 의류 및 신발(2.0)보다 낮음.
  - 이는 농축산물 단일 품목의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시사함.

## 농축산물과 주요 품목군과의 단위 품목당 가중치 비교

| 구분 | 가중치('15년 기준) | 품목 수 | 단위 품목당 평균 가중치 |
|---|---|---|---|
| 농축산물 | 66.0 | 71 | 1.2 |
| 의류 및 신발 | 61.4 | 30 | 2.0 |
|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 170.2 | 16 | 10.6 |
| 보건 | 68.7 | 32 | 2.1 |
| 교통 | 111.0 | 32 | 3.5 |
| 통신 | 54.3 | 5 | 10.9 |
| 교육 | 97.0 | 20 | 4.9 |
| 음식 및 숙박 | 129.4 | 44 | 2.9 |
| 기타 상품 및 서비스 | 55.4 | 36 | 1.5 |

자료: 통계청

# 2. 농축산물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자 반응 분석

## 2.1. 조사 개요

- 최근 일부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 변화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기간: 2016년 12월 21~22일
  - 조사응답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주부 소비자패널 627명
  - 조사방법: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조사
  - 표본오차: ±3.91(95% 신뢰수준)
- 응답자 특성
  - 연령대는 40대가 45.1%로 가장 많고, 50대 31.6%, 30대 14%, 60대 이상 7.7%, 20대 1.6%로 나타남.
  - 가구당 월 소득은 400~500만 원이 30.3%로 가장 많고, 500만 원 이상(28.4%), 300~400만 원(22.2%), 200~300만 원(14.2%), 200만 원 이하(3.0%) 순서로 나타남.
  - 직업은 주부가 52.3%로 가장 많고, 사무직 18.8%, 관리/전문직 8.8% 등으로 나타남.

### 조사 응답자 특성

| 구분 |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전체 | | 627 | 100.0 |
| 연령 | 20대 | 10 | 1.6 |
| | 30대 | 88 | 14.0 |
| | 40대 | 283 | 45.1 |
| | 50대 | 198 | 31.6 |
| | 60대 이상 | 48 | 7.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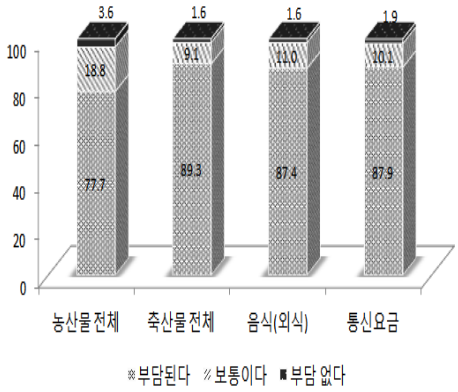
| 구분 |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월소득 | 200만 원 이하 | 19 | 3.0 |
| | 200~300만 원 | 89 | 14.2 |
| | 300~400만 원 | 139 | 22.2 |
| | 400~500만 원 | 190 | 30.3 |
| | 500만 원 이상 | 178 | 28.4 |
| 직업 | 주부 | 328 | 52.3 |
| | 사무직 | 118 | 18.8 |
| | 관리/전문직 | 55 | 8.8 |
| | 시간근로제(아르바이트) | 36 | 5.7 |
| | 자영업 | 30 | 4.8 |
| | 기타 | 60 | 9.6 |

## 2.2.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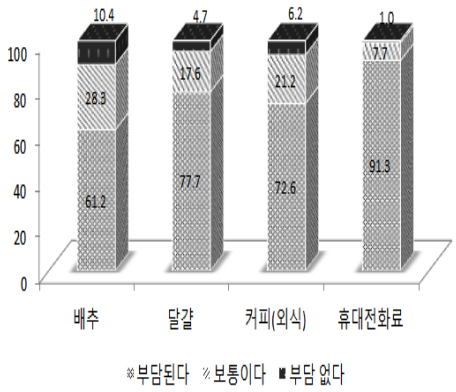
-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 시 모든 부류 및 품목에서 가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 중 가격이 상승했을 때 부류별 가계 부담 정도는 축산물이 90%, 통신요금이 88%, 음식(외식)이 87%, 농산물이 78% 순서로 나타남.
  - 7점 척도 기준 부류별 평균 점수(1점 전혀 부담 없다, 7점 매우 부담된다)로 살펴보면, 통신요금이 5.9점, 축산물이 5.7점, 음식(외식)이 5.6점, 농산물이 5.4점임.
  - 대표 품목의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휴대전화료가 6.0점, 달걀이 5.4점, 커피(외식)가 5.2점, 배추가 4.8점임.
  - 농산물(배추)의 가격 상승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가계 부담은 통신요금(휴대전화료), 음식(커피(외식)) 등 다른 부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소비항목별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정도

〈부류별 비교〉




〈품목 비교〉




- 소득수준별로는 모든 부류 및 품목에서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배추 가격 상승에 대한 가계 부담: 72.2%(200만 원 이하) vs 54.6%(500만 원 이상), 17.6%p 감소
  - 휴대전화료 가격 상승에 대한 가계 부담: 94.4%(200만 원 이하) vs 88.1%(500만 원 이상), 6.3%p 감소

## 소비항목별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정도

단위: %

| 구분 | | 200만 원 이하 | 200~300만 원 | 300~400만 원 | 400~500만 원 | 500만 원 이상 |
|---|---|---|---|---|---|---|
| 농산물 전체 | 부담된다 | 84.2 | 87.4 | 82.2 | 73.5 | 73.6 |
| | 보통이다 | 10.5 | 10.3 | 13.3 | 22.2 | 23.6 |
| | 부담없다 | 5.3 | 2.3 | 4.4 | 4.2 | 2.8 |
| - 배추 | 부담된다 | 72.2 | 75.0 | 67.4 | 53.4 | 54.6 |
| | 보통이다 | 22.2 | 17.0 | 20.0 | 35.4 | 35.1 |
| | 부담없다 | 5.6 | 8.0 | 12.6 | 11.1 | 10.3 |
| 축산물 | 부담된다 | 94.4 | 94.3 | 89.1 | 88.9 | 86.9 |
| | 보통이다 | 5.6 | 5.7 | 8.8 | 9.5 | 11.4 |
| | 부담없다 | 0.0 | 0.0 | 2.2 | 1.6 | 1.7 |

| 구분 | | 200만 원 이하 | 200~300만 원 | 300~400만 원 | 400~500만 원 | 500만 원 이상 |
|---|---|---|---|---|---|---|
| - 달걀 | 부담된다 | 82.4 | 90.9 | 81.0 | 73.0 | 72.9 |
| | 보통이다 | 11.8 | 4.5 | 16.8 | 22.8 | 20.3 |
| | 부담없다 | 5.9 | 4.5 | 2.2 | 4.2 | 6.8 |
| 음식(외식) | 부담된다 | 94.4 | 92.0 | 89.1 | 87.9 | 83.1 |
| | 보통이다 | 5.6 | 8.0 | 8.8 | 10.5 | 15.2 |
| | 부담없다 | 0.0 | 0.0 | 2.2 | 1.6 | 1.7 |
| - 커피(외식) | 부담된다 | 72.2 | 81.6 | 68.6 | 76.6 | 67.8 |
| | 보통이다 | 27.8 | 10.3 | 25.5 | 18.6 | 25.4 |
| | 부담없다 | 0.0 | 8.0 | 5.8 | 4.8 | 6.8 |
| 통신요금 | 부담된다 | 88.9 | 92.0 | 87.0 | 91.1 | 83.1 |
| | 보통이다 | 11.1 | 4.5 | 12.3 | 7.4 | 14.0 |
| | 부담없다 | 0.0 | 3.4 | 0.7 | 1.6 | 2.8 |
| - 휴대전화료 | 부담된다 | 94.4 | 94.3 | 92.1 | 92.0 | 88.1 |
| | 보통이다 | 5.6 | 3.4 | 7.9 | 6.9 | 10.7 |
| | 부담없다 | 0.0 | 2.3 | 0.0 | 1.1 | 1.1 |

- 가격 상승 시 농축산물 가계 부담은 크게 느끼고 있으나, 농축산물 지출액은 가격 상승 이전보다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배추 및 달걀의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지출액 변화 조사 결과, 가격 상승 이전과 '동일하다(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40.9%, 42.4%로 높음.
  - 소비자들은 배추 및 달걀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 지출액을 가격 상승 이전과 변화 없이 지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구입량을 줄이는 것으로 판단됨.
  - 배추는 가격 상승 시 '구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3%로 달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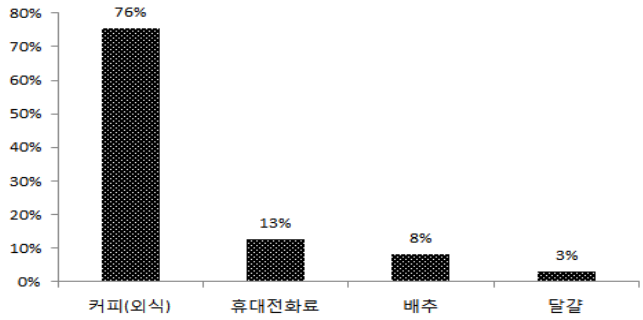
## 최근 가격 상승에 따른 배추 및 달걀 소비 지출액 변화

단위: %

| 구분 | 증가 | 변화 없음 | 감소 | 구매하지 않음 |
|---|---|---|---|---|
| 배추 | 16.9 | 40.9 | 26.9 | 15.3 |
| 달걀 | 21.4 | 42.4 | 34.4 | 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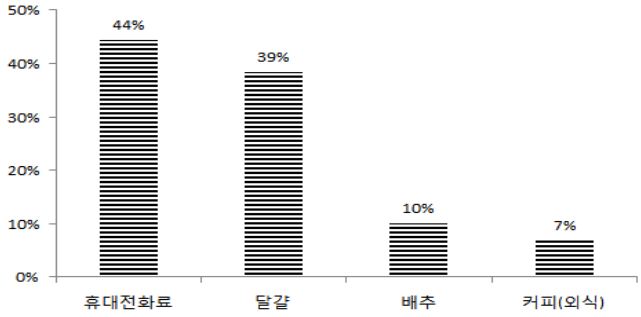
- 가격이 상승할 때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일 품목은 커피(외식)가 75.6%로 가격 상승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 배추와 달걀은 가격 상승 시 지출을 줄이겠다는 응답 비중이 각각 8.4%, 3.2%로 외식용 커피(75.6%)와 휴대전화료(12.9%)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가격 상승 시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일 품목




-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꾸준히 소비하는 품목은 휴대전화료(44.5%)로 나타남. 휴대전화는 가격 변화와 무관하게 꾸준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한 품목임을 시사함.
  - 달걀이 배추, 커피(외식)보다는 가격 변동에 덜 민감하게 소비되는 품목으로 나타남.

## 가격 변동에 무관하게 소비하는 품목



# 3.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

- 농축산물 가격변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품목의 전월 대비 가격 변동(품목 지수 변화)이 총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함. 2016년 11월 품목의 전월 대비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산정식은 다음과 같음.
  - 품목의 전월 대비 기여도는 전월 대비 품목 지수 변화와 전월 총 소비자물가 지수와의 차이, 품목 가중치가 총지수 가중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의해 결정됨.

$$\text{품목의 전월 대비 기여도} = \frac{(\text{당월 품목 지수} - \text{전월 품목지수})}{\text{전월 총 지수}} \times \frac{\text{품목 가중치}}{\text{총지수 가중치}} \times 100$$

- 2016년 11월 품목의 전월 대비 기여도를 계산해보면 다음 표와 같음. 배추 소비자물가지수가 2016년 10월에 232.8에서 2016년 11월 129.2로 감소하여 총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기여도는 -0.12%p로 나타남.
  - 휴대전화료와 커피(외식)는 소비자물가지수 변화가 거의 없어 전월 대비 기여도는 0%p임.

**총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품목의 전월 대비 기여도 추정**

| | 가중치 | 2016. 10. 소비자물가지수 (2015=100) | 2016. 11. 소비자물가지수 (2015=100) | 전월 대비 기여도 |
|---|---|---|---|---|
| 총 지수 | 1000.0 | 101.6 | 101.5 | |
| (농산물) 채소 | 15.1 | 127.2 | 119.9 | -0.108 |
| 배추 | 1.2 | 232.8 | 129.2 | -0.122 |
| 축산물 | 24.1 | 108.1 | 106.5 | -0.039 |
| 달걀 | 2.4 | 92.6 | 94.1 | 0.003 |
| 커피(외식) | 4.8 | 100.4 | 100.6 | 0.000 |
| 휴대전화료 | 38.3 | 100.0 | 100.0 | 0.001 |

- 만약 모든 품목 지수가 100에서 150으로 상승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전월 대비 품목 지수 변화와 전월 총 소비자물가지수와의 차이는 동일하기 때문에 품목 가중치가 총지수 가중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달라짐. 즉, 가중치가 큰 품목일수록 총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품목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남.
  - 가중치가 높은 휴대전화료의 기여도가 1.92%p로 높음.
- 가중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배추의 경우, 배추 가격이 50% 상승하더라도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0.06%p임. 이는 커피(외식)의 기여도인 0.24%p의 1/4 수준임.

**품목 지수가 100에서 150으로 상승 가정 시 각 품목의 기여도 추정**

| | 가중치 | 당월 소비자물가지수 (2015=100) | 전월 소비자물가지수 (2015=100) | 전월 대비 기여도 |
|---|---|---|---|---|
| 총 지수 | 1000.0 | 100 | | |
| (농산물) 채소 | 15.1 | 100 | 150 | 0.76 |
| 배추 | 1.2 | 100 | 150 | 0.06 |
| 축산물 | 24.1 | 100 | 150 | 1.21 |
| 달걀 | 2.4 | 100 | 150 | 0.12 |
| 커피(외식) | 4.8 | 100 | 150 | 0.24 |
| 휴대전화료 | 38.3 | 100 | 150 | 1.92 |

- 2016년 3/4분기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인 275만 원을 기준으로 품목 가중치를 활용하여 소비 지출액을 추정하면, 배추의 월 지출액은 3,300원, 달걀의 월 소비 지출액은 6,600원 수준임. 이는 커피(외식)의 월 지출액인 13,200원과 휴대전화료의 월 지출액인 10만 5,325원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만약 배추와 달걀 가격이 전월 대비 50% 상승 가정 시, 배추 월 소비 지출액은 4,950원, 달걀 월 소비 지출액은 9,900원 수준임.

-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낮은 배추, 달걀 가격이 50% 상승한 월 소비 지출액 증가분(배추 1,650원, 달걀 3,300원)은 휴대전화료의 10% 상승에 의한 추가 가계 부담분(10,533원)보다 낮음.
- 가중치가 높은 휴대전화료의 기여도가 1.92%p로 높음.

## 4. 요약 및 시사점

- 농식품분야 가중치는 감소 추세임. 축산물 가중치가 증가하고 있지만, 농산물 가중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축산물 가중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농축산물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함.
  - 농축산물 가중치 변화: 87.0 ('00)→ 75.0 ('05)→ 65.6 ('10)→ 66.3 ('12)→ 66.0 ('15)
  - 농산물 가중치 변화: 65.9('00)→ 54.5('05)→ 43.5('10)→ 44.1('12)→ 41.9('15)
  - 축산물 가중치 변화: 21.1('00)→ 20.5('05)→ 22.1('10)→ 22.2('12)→ 24.1('15)
  - 가중치가 높은 휴대전화료의 기여도가 1.92%p로 높음.
- 농축산물 가격변화에 대한 소비자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 시 모든 부류에서 가계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외식비 및 통신요금에 비해 농산물의 가계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었음.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비농축산물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배추 가격 상승에 대한 가계 부담 증가 응답자 비중: 72.2%(200만 원 이하)→54.6% (500만 원 이상), 17.6%p 감소
  - 휴대전화료 가격 상승에 대한 가계 부담 증가 응답자 비중: 94.4%(200만 원 이하)→88.1%(500만 원 이상), 6.3%p 감소

- 농축산물 가중치 변화: 87.0 ('00)→ 75.0 ('05)→ 65.6 ('10)→ 66.3 ('12)→ 66.0 ('15)

● 농축산물 가격변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여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배추 가격이 50% 상승하면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0.06%p로 커피(외식)의 1/4 수준임.

● 2016년 3/4분기 기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인 275만 원을 기준으로 품목 가중치를 활용하여 소비 지출액을 추정하면, 배추의 월 소비 지출액은 3,300원, 달걀 월 소비 지출액은 6,600원 수준임. 이는 커피(외식)의 월 지출액인 13,200원과 휴대전화료의 월 지출액인 10만 5,325원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낮은 배추, 달걀 가격이 50% 상승한 월 소비 지출액 증가분(배추 1,650원, 달걀 3,300원)은 휴대전화료의 10% 상승에 의한 추가 가계 부담분(10,533원)보다도 낮음.

●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물가는 소비자의 특성 및 구입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농축산물 가격 변동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 가구원수 등 소비자의 특성 및 구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01-2016-04

농업·농촌경제동향 2016 겨울호 | 제19권 제4호 (통권74호)

등 록
인 쇄 2017. 2
발 행 2017. 2
발행인 김창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전 화 061-820-2056 팩스 061-820-2409 http://www.krei.re.kr
인쇄소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